

12. 2월 + 0
2월 17일



조민지

이달의 표지 작가



표지 작품

〈10월의 여름〉

황동·백자·나무·아크릴 | 가변 크기 | 2019



조민지는 국민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했고, 2014년 국민대학교에서 우수 인재상을 받았다. 〈2018 공예주간 마켓유랑〉(문화역서울284, 2018), 〈2019 Becoming a Collector 연희동 아트페어〉(서울, 2019), 신당창작아케이드 10주년 기획전시 〈Quantum Leap: 비약적 도약〉(송원아트센터, 2019) 등에 참여했다. 〈Narrative Jewelry〉(Schiffer PubLtd, 2017) 및 〈공예+디자인〉《리빙센스》 등의 잡지에 작품이 수록됐고, 설화수·ELLE 등의 기업에 협찬했다. 신당창작아케이드 11기 입주작가로 활동 중이다.

나에게 자연은 늘 커다란 관심사다. 광활한 바다, 초록의 숲, 크고 작은 돌부터 틈새에 자라나는 버섯, 식물, 흙내음, 꽃과 꽃향기와 같은 것들. 그들 안에 내가 있거나 그들을 바라보거나 멍하니 떠올려보는 일은 정서적 안정을 준다. 그러한 평온한 감정을 자연을 닮아 있는 물건에 담아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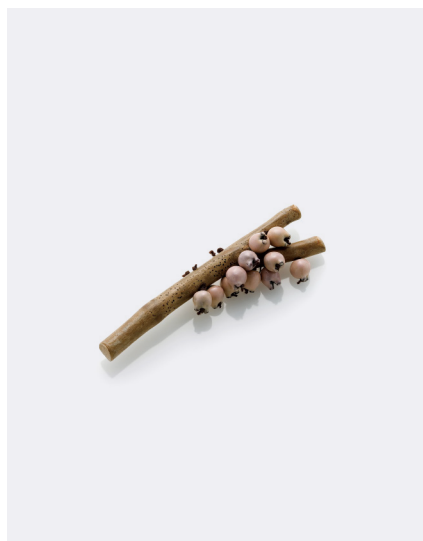
나는 좋아하는 이미지를 마음속 한 공간에 배치한다. 이 순간은 지친 일상 속 쉼의 시간이다. 나에게 그 일은 마치 복잡한 마음과 머릿속 생각을 날려버리고 좋아하는 것들로 나의 정원을 꾸미고 가꾸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가끔 들여다보며 평온함을 얻는 이 마음속 공간을 정원이라 부르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 공간은 주로 자연으로부터 오는 시청각의 자극, 일상의 기억할 만한 순간, 그로부터 파생되는 공상 이미지와 같은 각각 조각들의 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공간에 배치된 이미지로 형태를 만들고, 그것이 주는 정서적 안정을 떠올리며 작품을 제작한다. 그리고 완성된 작품에 이러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착용하거나 바라보는 때에 그 정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길 바란다.

금속을 기반으로 재료와 기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관심사와 감정을 작품에 녹여내는 것이 내 작업의 특징이다.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사용해 여러 개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도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개성을 유지한다. 액세서리 겸 오브제 기능을 가진 비교적 작은 부피의 장신구부터 인체를 벗어나 표현의 범위를 좀 더 확대시키고 평온한 무드와 서정적인 움직임을 더한 모빌 같은 오브제까지. 작품들은 나의 감정을 담아내는 하나의 표현 수단이 되고 있다.

내 마음속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이미지를 꺼내어 실제 공간에 투영하고 채워가는 것. 그런 이미지를 실체화하는 것이 나의 소소한 행복이다. 작품을 통해 우리의 꼭 찬 일상 안에 소소한 여유의 틈이 되었으면 한다. 나의 작품을 마주하며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느끼시길 바란다.



〈자연 속 조화로움〉
금속·옷칠·나무 외 혼합재료 | 55×160×25mm | 2018



〈열매〉
은·금속·칠보·나무·실 | 150×50×30mm | 2018



〈평온〉
황동·은·칠보·옷칠·금박 외 혼합재료 | 150×250×60mm | 2018

CONTENTS

2020 10 VOL. 164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종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전주호, 오니트(주)
각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디자인	(재)서울문화재단,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6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0년 9월 29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조민지

테마 토크

예술을 통한 회복과 치유

06 리포트 1

회복과 치유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12 리포트 2

신당 파트너 프로젝트 릴레이 전시 〈예술해독제〉

16 에세이

문학을 소리 내 읽는 시간이 선사하는 정화의 경험

사람과 사람

18 문화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24 작가의 방

최규성 대중음악평론가·유소영 작가

26 서울 찰나



28 진실 혹은 대답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이슈 & 토픽

34 화제 1

침체된 미술계에 활력 불어넣은 온라인 미술 시장

36 화제 2

코로나 시대, 공연 플랫폼의 변화

공간, 공감

38 공간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

40 공감 1

뮤지컬 〈베르테르〉와 〈시데레우스〉

42 공감 2

전시 〈Once Upon a Time〉과 〈April Fool 2020〉

44 공감 3

책《고집쟁이 작가 루이자》와《하우스 오브 드림》



SOUL OF SEOUL



46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

백운산장 위의 기도바위에서 감읍(感泣)하다

48 정지우의 썰(說)

청년 시절 내가 믿었던 것

50 서울 건축 읽기

내게로 오는 공원 ④ 연희동 공뜰 어린이공원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안주영 감독의 〈보희와 녹양〉

WEBZINE+

56 웹진 [비유]

가장 사적인 연대

58 웹진 [연극in]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햇살 놀이터 〈오버코트〉

60 웹진 [춤:in]

시온서커스학교 대표 이슬빛나

62 10월의 서울문화매뉴얼

68 편집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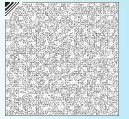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긴장과 불안의 연속인 일상을 이어가며
지쳐버린 사람들에게 예술이 손을 내밀고 있다.
잠시나마 힘든 현실을 잊게 해주고,
마음을 푼 건드려 눈물을 쏟게 만들고,
잘 견디고 있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를 건네는 예술의 힘에 기대어볼 때다.



코로나로 지친 당신을 안아주는 예술

예술을 통한 회복과 치유

〈힘나는 예술여행〉으로
병원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사이 멀어진 것은 나와 당신의 공간적 거리만이 아니다.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누던 정서적 공감도, 공연장과 전시장을 거닐며 느끼던 예술적 감흥도 사라졌다. 여전히 거리를 뒤편하는 상황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예술의 힘이 필요하다. 사연을 접수해 꼭 맞는 문화예술 선물을 준비하는 <문화로 토닥토닥>, 치열하게 싸우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선사하는 <힘나는 예술여행>, 예술가들이 직접 건네는 위로 <예술가의 코로나 처방전> <문학에 물들다>, 한결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예술 치유 프로그램 <내속도로 워크숍> <예술×힐링 아지트>,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 앞의 예술 놀이>까지. 이제는 감염 예방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예술로 '나'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다.

코로나19에 대항하는 '예술 백신'

단순히 신체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강타한 질병, 진정되는가 싶더니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일상마저 돌아보게 되는 요즘이다. 잠깐의 예방 조치일 줄 알았던 '사회적 거리 두기'는 몇 달 사이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감염병 예방 기본 원칙이 되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던가.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미뤘던 것들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노력하고 있지만 쉽게 좋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무기력감마저 몰려오는 시기다. 이럴 때일수록 예술의 힘과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 비록 공연장과 미술관에 가기 힘들어졌지만, 예술이 그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니.

지친 마음에 예술을 <문화로 토닥토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와 동행하는 시기의 공연예술은 너나 할 것 없이 영상 형태로 유통됐다. 그러나 영상이라는 매체가 가진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이 갖는 현장성의 매력은 부족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사람들은 손쉽게 클릭만으로 볼 수 있는 공연에 열광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객석에 앉아 실황 무대를 보고 싶다는 갈망만 더해졌다.

서울시가 8월부터 준비한 시민 응원 프로젝트 <문화로 토닥토닥>은 온라인 콘텐츠이지만, 핵심은 '찾아가는 공연'에 있다. 사연을 온라인으로 접수해 선정된 주인공에게 공연을 선물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을 고려해 사연의 주인

공과 공연자를 포함해 10명 이내로 제한한 '1 대 1 소규모 공연'과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랜선 콘서트'로 진행된다. 8월 6일부터 31일까지 57건의 사연이 접수됐고, 30명의 이야기가 채택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학교에 가지 못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느라 답답함을 호소하는 어르신 등...그중 위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공연을 선물하고 싶다는 사연이 <문화로 토닥토닥> 1호 공연으로 선정됐다.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었지만 어머니께서 병마와 싸우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효도 한번 못 해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께 이제는 인생을 즐기시라고 공연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3일,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 부부의 무대가 펼쳐졌다. 평소 성악과 뮤지컬을 좋아한다는 사연 주인공의 이야기를 토대로 서울시가 공연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사연을 전달받은 배우들도 흔쾌히 동참하기로 한 것. <문화로 토닥토닥> 첫 공연이 열린 날, 사연 속 가족과 뮤지컬 배우가 만나 감동의 무대가 펼쳐졌다. '1 대 1 소규모 공연'은 오는 12월까지 이어지며, <문화로 토닥토닥> 웹사이트(cultureseoul.co.kr)를 통해 사연을 받고 있다.

한 주 뒤인 9월 19일, '랜선 콘서트'도 시작을 알렸다. 사연이 채택된 6명의 주인공과 예술가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며 공연을 펼쳤다. 일반 시민들도 유튜브와 네이버TV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올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서울365거리공연단'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며, 서울시예술단·서울시립교향악단과 서울 대표 비보이 등 단체들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향은 음악감독 오스모 벤스케의 지휘로 단원 33명이 자신의 집에서 연주해 스트라빈스키 '폴치넬라' 모음곡을 완성한다. 몸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나 마음으로 모은 하나의 선율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은 <문화로 토닥토닥>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집에서 즐

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공개된다. DIY 키트와 온라인 강의를 이용해 취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돈의문박물관마을과 남산골한옥마을에서 다식·목공 램프·석고 방향제 만들기 등 '온라인 체험 공방'을 연다. 악기를 갖고 있다면 생활음악 강좌, 아이가 있다면 예술놀이 콘텐츠를 즐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 박물관·미술관도, 공연장도 가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이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서울문화포털 culture.seou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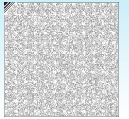
<문화로 토닥토닥> 유튜브 youtube.com/c/culturetodaktodak

<문화로 토닥토닥> 네이버TV tv.naver.com/culturetodaktodak

'문화본부'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city_culture

'문화본부' 페이스북 facebook.com/culture.seoul.go.kr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힘나는 예술여행〉

전국 방방곡곡 문화 향유 소외 계층을 찾아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이 올해는 의료진을 위한 〈힘나는 예술여행〉으로 변경,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을 찾아간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감염 위험과 치료 양쪽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의료진이야말로 가장 힘든 이들이 아닐까. 지난 4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를 위해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힘나는 예술여행〉은 5월과 6월 두 달간 매주 수요일, 비대면 원거리 방식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을 찾아 야외 공연을 열었다. 시각예술 단체 노드트리와 올댓큐레이팅은 병원 내 대형 조형물을 설치해 온 국민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전달했다.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해 악보로 변환한 음악을 전시에 사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8월과 9월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민해 미디어아트 전시를 진행했다. 최장 15m 길이에 달하는 대형 작품을 병원에 설치해 오가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서울의료원·부산의료원·대구의료원 등 9개 병원에서 펼쳐졌다.

전시 위해 미디어 콘텐츠 제작 그룹 디스트릭트(d'strict)와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이 후원에 뜻을 모았다. 최근 SM 타운 코엑스 아트룸에 설치한 작품 〈WAVE〉로 뜨거운 주목을 받은 디스트릭트는 넥센타이어의 후원으로 의료진의 도전과 협력 정신을 담은 작품 7편, 이이남은 '다시 태어나는 빛-19'라는 주제로 동·서양을 대표하는 화화 작품을 특유의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6편을 선보였다. 눈앞에서 생생하게 부서지는 파도, 살아 움직이는 듯한 영화의 필치가 지친 일상에 산뜻한 기운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보는 이들에게 힘을 불어넣는다. 병원이 방문하기 두려운 곳이 아니라 의료적 치료는 물론 예술로 마음까지 치유되는 공간이기를 바라는 노력이 깃들어 있다.



1 〈문화로 토닥토닥〉에 동참한 뮤지컬 배우 김소현·손준호 부부의 무대
2 〈힘나는 예술여행〉의 일환으로 서울의료원에 설치된 d'strict의 작품 〈트리〉

글과 그림으로 남은 '코로나 시대' 〈예술가의 코로나 처방전〉〈문학에 물들다〉 《사진을 많이 찍고 이름을 많이 불러줘》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 예술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술가의 코로나 처방전〉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공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7월과 8월 매주 월·수·금요일, 경기문화예술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ggc)'에 예술가 17명이 바라본 다양한 시선이 공개됐다. 시인 박준, 화가 김정현, 디자이너 안상수, 사진작가 김도균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은 '지지씨'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문화예술계의 상황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희망이 있다고 외치기보다는 현 상황을 직시하고 그것을 가장 예술적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 이들이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예술가의 코로나 처방전〉으로 발표된 에세이·칼럼·그림·타이포그래피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통해 바이러스의 흔적을 지우고 치유의 길을 모색해 본다. 시인 박준은 지금의 상황을 '혼밥'에 비유해 아주 평범한 인사였던 "밥 한번 먹자"를 쉽게 외칠 수 있는 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 그림책 작가 이억배는 <Corona19 new world>라는 작품을 통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담았다. 자연과 인간, 평등과 불평등, 자유와 책임, 절망과 희망의 대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연희문학창작촌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학계를 지원하고 희망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10월 캠페인을 펼친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여한 국내 작가들과 함께하는 <문학에 물들다>는 라디오방송에서 작가 개인과 사회가 만나도록 주선한다. 10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평일 오전 9~10시 tbs FM(95.1MHz)을 통해 방송되는 <김규리의 풍당풍당>과 함께하는 문학 캠페인에 한 사람씩 출연, 자신의 작품을 낭송하고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가들이 지금 이 시기에 건네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 어떤 느낌일까. 더불어 매주 하루씩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작가와 청자가 만나는 시간도 마련된다. 매일 아침, 늘푸른나무처럼 문학과 함께 아침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한편 김안·김엄지·손보미·임성순·최지인 등 젊은 작가 13명이 최근 힘을 모아 출간한 에세이집 《사진을 많이 찍고 이름을 많이 불러줘》는 유례없는 낯선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담은 책이다. 1980년대 문인들의 눈으로 본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글을 쓸 때의 치밀한 시선으로 사회를 관찰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건넨다. 얼굴과 얼굴이 아닌 전자기기와 대면하는 회의 방식,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하는 근무, 머무를 수 없는 카페 등 감염병의 위험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현실. 가족과 친구, 이웃의 소중함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목 그대로 '사진을 많이 찍고' '이름을 많이 불러'줄 것을, 작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코로나19의 존재를 모르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기에, 상처받고 우울을 경험하는 우리 마음을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예술가들이 기록한 오늘은 후세대에 또 다른 예술로 남게 될 테니.

경기문화예술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지지씨' ggc.ggcf.kr
서울국제작가축제 siw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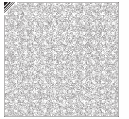


내 마음, 들여다보고 어루만지기 〈내속도로 워크숍〉〈예술×힐링 아지트〉

어떤 콘텐츠로도 굳어진 마음이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떨까. 시민청은 '일상을 위한 일탈'을 주제로 감정 회복을 위한 <내속도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간헐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의 감정을 조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새로운 방식의 관계 맺기를 시도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답답함과 침울함을 느꼈다면 워크숍을 통해 마음 치유에 나서보자. 지난해부터 시도된 이 워크숍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가상의 빌리지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 사회에서 마주하는 좌절로부터 내 마음을 단단하게 가꾸도록 도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비

3 2019 시민청 <내속도로 워크숍>
'나를 규정했던 말' 5개 적어보기

4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비대면 프로그램
<문 앞의 예술놀이>



대면의 특성을 살려 참여자들과 운영진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 사흘간 매일 세 시간씩 진행되는 워크숍을 통해 '무인도'로 비유한 현재 상황에서 겪는 개인의 감정을 조명한 뒤, 그러한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를 시도한다. 워크숍 키트와 익명성이 보장된 자체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싱어송라이터 쓰다의 공연과 연극배우 백한나에게 배워보는 호흡법 등 같은 공간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전문적인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플랫폼 구실을 하고 있는 서울예술치유허브에서는 기획 프로그램 <예술×힐링 아지트>를 선보인다.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서울예술치유허브에서 지난해 상설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재설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놀이터에서 맘껏 뛰어놀기도 어려워 성인보다 답답함을 더 느끼는, 심지어는 우울감을 겪기도 하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아이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예술×힐링 아지트> 프로그램은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연계해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며, 10월과 11월 매주 토요일에 운영된다.

예술도 배달됩니다 <문 앞의 예술놀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예술적 놀 권리를 위해 개소한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역시 현 상황으로 인해 기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마음 놓고 외출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예술적 놀 권리마저 빼앗을 순 없는 법. 예술교육가(TA)들이 머리를 맞대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했다.

배송 플랫폼 예술놀이 LAB <문 앞의 예술놀이>는 7개 프로그램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해 신청하면 예술놀이 키트가 집 앞에 배송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행 방법은 간단하다. 키트에 동봉된 안내에 따라 집 혹은 근처 공간에서 놀이를 진행한 뒤 센터로 반송하면 된다. 그렇게 다시 모인 결과물은 지난 8월 결과 공유 전시회 <택배, 예술이 되다>로 이어졌다. 참여자와 예술가 공동의 창작물을 결산하는, 일종의 '결과 공유 전시회'를 운영한 것이다. '문 앞의 예술놀이' 시즌2는 9월부터 11월까지, 새롭게 정비된 프로그램을 싣고 다시 한번 참여자들의 집 앞으로 찾아간다.

글 김태희_무용평론가 사진 제공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코로나 우울’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유를 캐자면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한다는 답답함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 사태를 진정시키려면 감염자 수 줄이기 대책 못지않은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와중에 ‘회복(해독)’을 주제로 진행되는 행사가 있어 반가운 마음이 든다. 신당창작아케이드 ‘프로젝트 릴레이 전시’가 바로 그것. 10개로 구성돼 매주 1개씩 10주간(7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지면에는 이미 진행된 전시 4개(7~9월)와 진행될 전시 1개(10월)를 소개한다. 전시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신당창작아케이드 인스타그램(‘@sdarcad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 우울 털어버리기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감과 전염시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정신을 망가뜨리고, 거리 두기로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하자 답답함은 쌓여만 간다.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의 병은 깊어진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며 ‘코로나 우울’을 겪는 사람이 늘었다. 지난 9월 이은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상반기 우울증 관련 진료 인원은 59만 57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8%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6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

례브리핑’에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우울증 상담이 37만 431건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치는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 약 6개월간(1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의 상담 건수를 모은 것으로 지난해 1년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뤄진 우울증 상담 건수 35만 3388건보다도 많은 수치다.

회복과 해독을 이야기하는 전시

이런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걸까. 예술이 주는 회복(해독)과 치유의 기능에 주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신당 파트너 프로젝트¹ 릴레이 전시 〈예술해독제〉’가 그것. 전시는 비대면과 비접촉을 강요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동시대의 현재를 위로하고 있다. 〈예술해독제〉를 진행하는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여은미 주임은 “이번 전시는 공예·디자인 장르 입주작가들의 예술적 아이디어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예술가들은 작품 활동의 기회를 얻고, 시민들은 예술로 표현한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친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길 바랍니다.”라며 기획 의도를 말했다. 참여 작가는 신당창작아케이드의 11기 입주작가 중 공모를 통해 선발한 작가 20명이다. 이들이 개인 또는 팀으로 전시 1개씩을 기획했다. 〈KF-94 FACTORY〉를 시작으로 8월 한 달은 〈해독의 해독〉 〈주식회사(宙食會社) 감성 컨설팅〉 〈해독의 정원 Detoxing Garden〉 〈강강술래〉가 진행됐고, 9월에는 〈Connect〉 〈사소함에 대한 이해〉 〈안녕, 우리〉 〈코로나19, 해독 레시피〉가 펼쳐졌다. 10월에는 〈일상의 나날〉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는 신당창작아케이드 SASS 갤러리(중구 마장로 87, 서울중앙시장 지하)에서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현재(9월 14일 기준)는 갤러리 밖에서 쇼케이스를 통한 관람만 가능하다.

¹ 신당 파트너 프로젝트(SPP, Sindang Partner Project)는 신당창작아케이드 공간을 활성화하고 입주작가들의 역량을 강화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만드는 예술가 협력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멀어진 사회적 관계를 예술로 좁히고 치유하는 ‘프로젝트 릴레이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된
〈KF-94 FACTORY〉에 전시된 작품인
'KF-MACHINE'의 3호기



일상 속 이야기를 수집하고 예술적 방식으로 행복을 제조하다

릴레이 전시의 포문을 연 첫 번째 전시, 1주차 전시였다. 전시명 〈KF-94 FACTORY〉의 KF는 'KITSCHPOP Filter'의 약자로 부정적 에너지를 동력 삼아 행복을 제조한다는 의미다.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을 글로 쓴 뒤 전시장 앞에 있는 메시지 수거함에 넣으면 KF-94 MACHINE이 시각 작품으로 만들어줬다. 기계가 실제로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전시를 기획한 키치팝의 구성원(예술가)이 전달받은 메시지를 이미지(드로잉)로 표현했다. KF-94 MACHINE은 부정적 에너지를 수거하는 1호기와 행복에너지로 치환해 주는 2호기, 해독된 메시지를 포장하는 3호기로 이루어졌다. 특히 3호기에는 키치팝 구성원의 기존 작품들이 기획 작품(KF-MACHINE)에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했다. 이미지로 표현된 메시지(드로잉)는 첫 전시가 끝난 뒤에 사연을 보낸 시민들에게 우편 및 SNS를 통해 전달됐다.

〈KF-94 FACTORY〉(키치팝: 도파민 최, 정경우) | 7. 28~8. 1
※ 1주차 전시는 롯데백화점 강남점(10. 6~31)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진 '해독'의 진짜 해독에 대해 다루다

〈해독의 해독〉은 예술가 개인의 경험이 모티프가 된 전시로 출품작과 함께 예술가가 직접 쓴 일기 형식의 글도 전시됐다. 작가의 경험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된 건 코로나19로 생긴 두려움과 공포감을 이겨낸 개인의 경험을 가감 없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최철휘 작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일본에 체류하며 감염의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 사람이 바이러스로 보이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럴수록 더욱 지쳐갔다. 두려움이 마음을 집어삼키자 무기력감은 커져만 갔다. 그가 회복된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가짐이 변했기' 때문이다. 시각의 전환과 관계의 회복을 다룬 〈해독의 해독〉은 보는 방법과 마음가짐이 바뀌면 기존에 알고 있던 무언가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말한다. 무겁고 어두운 현실을 해독(解讀)하는 방법을 해독(解毒)하면 지금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독의 해독〉(최철휘) | 8. 4~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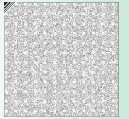
코로나19로 만들어진 유독한 물질을 제거하고 긍정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다

전시 열기를 이어간 4주차 전시에서는 지쳐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줄 신비로운 느낌을 내는 식물과 디톡스 화분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살아 있는 식물과 식물의 긍정 에너지를 시각 이미지로 만든 예술 작품과 합쳐져 더 강력한 긍정 에너지가 뿜어 나왔다. 〈해독의 정원〉은 해독과 정화 작용을 하는 식물과 식물이 담긴 화분을 재해석한 오브제와 교감을 유도한 회복의 공간이자 휴식의 공간이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며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마주하며 나누는 교감의 의미와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는 요즘, 예술이 그런 교감의 부재를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해준 전시였다.

〈해독의 정원 Detoxing Garden〉(해독의 정원사들: 조아라, 구자문) | 8. 18~8. 22

신당창작아케이드 릴레이 기획전시 〈예술해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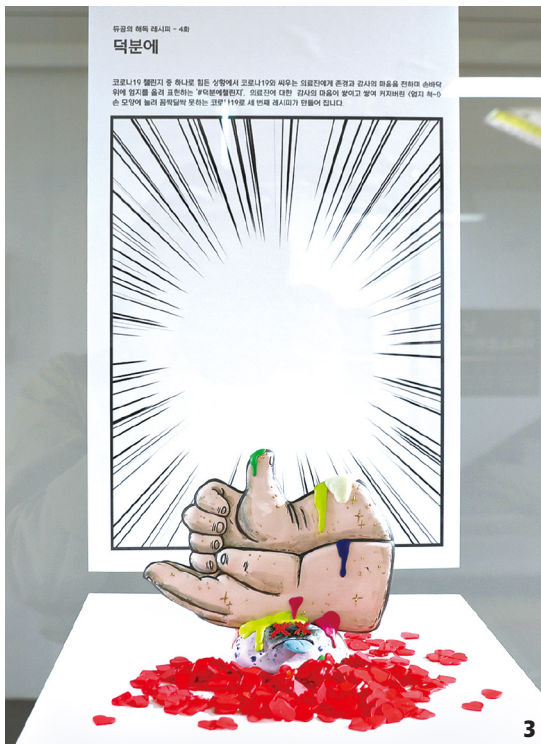
주	기간	전시명	참여작가/팀명
1주	7. 28~8. 1	KF-94 FACTORY	키치팝(도파민 최, 정경우)
2주	8. 4~8. 8	해독의 해독	최철휘
3주	8. 11~8. 15	주식회사(宙食會社) 감성 컨설팅	그대 안의 블루(이준수, 신이서, 박성림)
4주	8. 18~8. 22	해독의 정원 Detoxing Garden	해독의 정원사들(조아라, 구자문)
5주	8. 25~8. 29	강강술래	침침(최환성, 정원)
6주	9. 1~9. 5	Connect	최은별
7주	9. 8~9. 12	사소함에 대한 이해	장해림
8주	9. 15~9. 19	안녕, 우리	잇다(박민주, 백시내, 최지숙)
9주	9. 22~9. 26	코로나19, 해독 레시피	소혜정
10주	10. 6~10. 10	일상의 나날	박수지



1



2



3

- 1 8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해독의 해독>에 전시된 작품
- 2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해독의 정원 Detoxing Garden>에 전시된 작품
- 3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코로나19, 해독 레시피>에 전시된 작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방법을 레시피로 만들다

9월의 마지막 전시인 9주차 전시에는 작가의 페르소나 중 하나인 블랙애니멀즈의 듀곰(?~1)이 영웅 캐릭터로, 코로나19는 악당 캐릭터로 등장했다. 듀곰이 코로나19를 무찌르는 순간순간이 다양한 베리에이션으로 표현됐다. 듀곰이 코로나19를 지지고 볶고 끓이며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우리를 괴롭힌 코로나19를 혼내줬다는 쾌감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보이지 않아 더 무서운 코로나19를 캐릭터로 구현해 우리 눈높이로 끌어내려 정복할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든 점이 인상적이었다. 코로나19를 무찔렀으니 다시 예전과 같은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19, 해독 레시피>(소혜정) | 9. 22~9. 26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인간의 감정을 +, - 등의 수식으로 표현하다

열려 있는 포문을 닫을 릴레이 전시의 마지막인 10주차 전시. 평소 자연을 주제로 도자 작업을 해온 작가에게 던져진 주제는 사회현상. 기존에 잘 쓰지 않던 재료를 이번 전시를 위해 과감히 사용한다니 기대감이 크다. 작가는 코로나19의 통계 그래프(확진자, 완치자, 검사자 수 등)에 집중한다. 그래프의 변동 폭에 따라 하루하루 달라지는 사람들의 감정에 주목하는데 작가의 감정 변화도 예외는 아니다. 도자로 그래프를 표현한 뒤 유리나 아크릴 재료를 사용해 감정의 변화를 색 또는 +, -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일상의 나날>(박수지) | 10. 6~10. 10

글 전주호_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한 공간에 모여 시와 소설을 소리 내 읽으면, 언어뿐만 아니라 공간의 떨림도 함께 느껴져 그것마저 문학의 일부가 된다. 책장에 꽂힌 시집을 꺼내 한 구절을 소리 내 읽어보면 내 목소리로 듣는 시는 눈으로 읽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읽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크고 작은 감정적 물결을 일으키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한 낯선 경험.

낭독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엔 항상 뭔가를 쓰고 싶다는 오온 시인. 누군가와 만나고 대화하는 일이 극도로 조심스러워진 시절, 예술이 주는 이런 경험은 한 소설의 제목처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것을 작가는 잘 알고 있었다.

끝어당기다

한 달에 한 차례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청취자의 사연이 도착했다. “코로나19 시기의 힘들음 시를 읽으며 이겨내고 있어요. 우울감이 밀려올 때 시집을 꺼내 아무 페이지나 펼쳐 크게 낭독을 하면, 이상하게 정화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연을 읽고 진행자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다. “여행 안 좋아하는 사람조차 몸이 근질거리는 게 요즘이잖아요. 집에 온종일 혼자 있다 보면 말한 마디 안 할 때도 있고요. 말은 제때 나오지 않고 감정은 억눌릴 수밖에 없지요. 아마 그분은 누군가와, 혹은 스스로와 대화하는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방송이 끝난 후 버스를 타러 가는 내내 그분 생각이 났다. 생면부지의 누군가가 책장에서 시집을 꺼내 읽는 모습을 상상했다. 어떤 시집이었을까. 어떤 시였을까. 어떤 구절이 그를 움직였을까. 낭독할 때의 목

소리는 집 안에서 어떻게 울려 퍼졌을까.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대신, 나는 시집 서점 ‘위트 앤 시니컬’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오늘은 시집을 넉넉히 사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버려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부드러워질 것이다.

위트 앤 시니컬에서는 정기적으로 시 낭독회가 열린다. 나는 현장에서 시인들이 시를 읽는 것을 가만히 앉아 듣는 것을 좋아한다. 낭독이 끝나면 “딱 저 시인이 쓴 시 같대!”나 “아, 저렇게 읽으니까 말맛이 사는구네!” 같은 탄복이 으레 뒤따라왔다. 그리고 모든 글은 그 글을 쓴 사람이 읽어야 가장 좋다는 확신이 생겼다. 목소리의 힘은 위대한 것이었다.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나는 어디로든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귀로 듣고 온몸의 숨구멍이 열릴 때,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고 그저 이곳에만 머물고 싶었다.



‘듣는 시’가 갖는 힘

낭독회의 낭독자로 참여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나는 독자로서 낭독회에 참석할 때를 더욱 좋아한다. 시를 듣는다는 것은 묵독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 온몸이 진동하고 온 마음이 동하는 순간도 종종 찾아왔다. 어느 날의 시는 노래 같았고 어느 날의 시는 수수께끼 같았다. 들으면서 떠올리고 읽으면서 떠올린 것을 붙잡아두는 순간이 반복되었다. 낭독회가 끝나면 나도 모르게 기진맥진해졌는데, 아마도 온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낭독한 사람이 꼭 너 같다?” 어느 날엔 누군가가 웃으며 내게 물었는데, 별도로 없이 희미하게 웃고만 있었다. 정말로 힘이 하나도 없었다.

낭독회에 다녀온 날이면 늘 뭔가를 쓰고 싶었다. 말하고 싶었다. 시간의 밀도가 아주 높았던 그때를 어떻게든 남겨두고 싶었다. 시도, 소설도, 희곡도 현장에서는 다른 차원의 어떤 것으로 내게 깃들었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좋았다’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 어떻게 왜 좋았는지 스스로에게 집요하게 물었다. 그리고 그것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정제되지 않은 감정처럼 글씨는 늘 뻘뻘뻘했다.

시를 발음하는 순간 시작되는 새로운 우주

권여선 소설가가 《문학과사회》에 발표한 단편 〈손톱〉을 완독하던 날이 떠오른다. 나는 사전에 그 소설을 읽지 않은 채 참석했다. 아무 정보 없이 소설을 듣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알고 싶었다. 권여선 소설가와 독자가 번갈아 낭독하는 형식이었는데, 소설의 말미에서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소설의 주인공은 소희인데, 소희의 하루하루를 따라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분히 자발적인 것이기도 했다. 맘껏 울고 싶은 찰나, 누군가가 비수 같은 말을 내게 던진 것처럼 말이다. “소희는 강변을 달리는 통근버스 차창에 바짝 붙어 앉아 아침햇살에 반짝이는 강물을 본다. 버스가 좋은데, 소희는 버스가 슬프다. 그러니까 슬픈 건 버스가 아니라 햇빛인데, 슬프면서 좋은 거, 그런 게 왜 있는지 소희는 알지 못한다.” 지금 돌이켜 보아도 슬프면서 좋은 시간이었다.



위트 앤 시니컬에서 열린 시 낭독회에 참여한 이들

하재연 시인의 낭독회에 다녀온 날,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여운이 길다. 집에 돌아와 《우주적인 안녕》(문학과지성사, 2019)을 다시 읽었다. 읽은 것을 다시 읽는다는 것, 한번 들어온 것을 좀 더 깊숙이 밀어 넣는다는 것, 개중 어떤 것은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고 낯설기까지 하다는 것. 재독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다. 우주를 기어이 만드는 이와 그것을 기꺼이 만나는 이.” 그런 날에는 시의 행간이 단순한 여백이 아니었다. 행성과 행성 사이는 멀지만, 그 안이 보이지 않는 입자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다. 청취자 분의 사연처럼 ‘이상하게 정화되는 느낌’을 나도 이미 받고 있었던 것이다.

문득 파스칼 키냐르가 쓴 《은밀한 생》(문학과지성사, 2001)의 한 대목이 떠오른다. “아름다운 텍스트는 발음되기도 전에 들린다. 그것이 문학이다.” 그러나 들린 것을 다시 발음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거기에 나 자신이 앉아 있을지도 모르고 생면부지의 누군가가 서 있을지도 모른다. 누가 되었던 발음하는 이를 그쪽으로 힘껏 끌어당기고 있을 것이다. 약간 기우뚱한 쪽으로, 보통은 서늘하고 때로는 뜨거운 곳으로. 그때마다 나는 잠시 내가 아닌 것 같다. 아니, 그때만큼은 내가 다름 아닌 나인 것만 같다. 슬픈 것도 나, 좋은 것도 나, 슬프면서 좋은 것도 나, 슬퍼서 좋은 것도 나다. 나는 나를 한껏 끌어당긴다.

글 오은·시인 사진 제공 시집 서점 위트 앤 시니컬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그리는 게 정답 아닐까요?”

그래피티 아티스트 심찬양

부산 해운대 영무파라드 호텔 12층에서 15층,
11m 높이의 벽면에 붉은 치마에 색동저고리를 입은 소녀 그림이 그려졌다.
한쪽 발을 살포시 들어 색동신을 신으려는 그림 속 그녀는
‘벨라’라는 이름의 흑인 아이다. 이 그림의 제목은 〈Walk in Your Shoe 2020〉.
사자성어 ‘역지사지’의 영어표현인 ‘Put yourself in one’s shoes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라)’에서 따왔다.
최근 이 작품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심찬양 작가를 전화 인터뷰로 만나봤다.



처음엔 그저 멋있어 보여서 시작한 그라피티

이름에서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듯, 심찬양 작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목사인 ‘목회자 집안’ 출신이자 그 스스로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어렴풋하게나마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꼭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집안의 압박을 받은 적은 없다. 다소 특수한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직업을 응원해 준 분들도 다름 아닌 부모님이다. 부모님은 매번 심 작가의 선택과 결정을 믿고 지지해 주셨다.

중학생 때 《힙합》이라는 만화책을 보며 그라피티(래커 등을 이용해 공공장소 또는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 및 기타 흔적을 남기는 행위) 문화에 호기심을 가지게 된 한 소년은 김천에 고를 다니던 학창 시절부터 직접 그라피티를 그리러 다녔다. 그



올해 국제 구호기구인 월드비전과 함께한 〈World is One〉 캠페인 작품

“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동네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 그라피티라고 생각해요.”

후 대학에서 만화창작을 공부하다가 필리핀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갔지만, 그곳에서 깨달은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그림’을 그리는 삶이라는 사실이었다.

이후 서울에서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라피티 작업을 했지만 한국에서 그라피티로 먹고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이다. 돈이 되는 작업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릴 수가 없었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은 돈이 되지 않았다. ‘내가 그리고 싶은 것’과 ‘경제적인 문제’ 사이에서 방황했다. 그래도 그는 이 시절을 인생의 암흑기처럼 되새기지 않았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며 지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다고 되새기면서 ‘돌이켜 보면 가장 재밌었던 시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세상에 이름을 알린 〈꽃이 피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그라피티의 본토인 미국 땅을 밟아야겠다는 생각은 어찌 보면 무모한 선택이기도 했지만 그런 ‘모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도 있는 셈이다. 심찬양 작가를 세상에 알리게 된 계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스트리트 아티스트들의 교류 공간이자, 작품을 전시하는 복합문화공간인 ‘더 컨테이너 야드’에 2016년 그린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작품이다. 먹색의 저고리에 초록색 치마를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흑인 여성 옆으로 멋진 서체의 한글과 단아한 자태의 꽃이 조화를 이룬다. 그가 한복을 입은 흑인을 그린 것은 이 작품이 처음은 아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도종환 시인의 시 제목에서 영감을 얻은 〈흔들리며 피는 꽃〉도 그중 하나다. 당시 친구의 소개로 우연찮게 얻은 기회였다. 두 번째로 더 컨테이너 야드에서 초청을 받아 넓은 면적에 그릴 기회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행운이었을까. 이 그림으로 일약 스타가 됐다. “동서양 문화



2019년 4월 괌에서 열린 <Pow! Wow! Guam 2019>에서 그린 작품.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것을 중시하는 작가는 조망하는 시선에서 찍은 사진을
선호한다.

를 잇는 화해의 메시지 담고 있다”라는 미국 언론의 찬사는 물론 ‘한복을 입은 흑인’을 그리는 그라피티 작가라는 자체만으로 미국 전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의 그림을 본 흑인 여성들로부터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메시지도 여러 번 받았다고 한다.

“백인과 흑인 간의 인종차별도 문제지만, 한국인에게 상처받은 흑인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인들이 흑인을 많이 고용하는데, 아마 그 사이에서 받은 상처인 것 같더라고요. 제 그림을 보자,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흑인 여성들이 감동을 받은 이유 중 또 하나는 ‘한복’에 있었다. 어떤 불필요한 노출 없이, 단아하고 단정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한복은 흑인 여성들이 더는 ‘성적 대상화’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위안을 주기 충분했다. 흑인 여성들이 그동안 받았을 온갖 상처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그는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러 건의 작업을 했다. 한반도 평화가 가져온 변화를 주제로 해, 다양한 분야의 젊은 작가들이 참여한 청와대와의 컬래버레이션 전시 <어서 와, 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그린 <환대>와 다문화가정 소녀들을 그린 <어깨동무>로 화제를 낳기도 했다. 작년 11월 경북 안동 성진골 벽화마을 입구에 위치한 동부초등학교 본관에 그린 작품은 안동에서 “한복 입은 흑인 소녀를 그려달라”라는 요청이 와서 한 작업이었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도 그림을 그렸다. 순천종합버스터미널 뒤편 골목 한 건물 벽면에 국내 작업 중 최대 규모(가로 22m, 세로 19m)로 미국계 한국인인 ‘벨라’가 색동저고리를 입은 모습을 그렸다.

최근 여러 도시재생 사업과 공공예술의 범주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라피티 작업에 대한 심찬양 작가의 의견이 궁금했다. 그는 이것들은 모두 ‘시선’의 차이라고 말했다.

“낙서에서 시작한 그라피티가 예술이라는 범주로 올라갔다고 언론에서 많이들 보도하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제 작품만 생각했을 땐 유리한 지점도 있지요. 비정형의 ‘낙서’ 같은 그라피티 신(scene)에서 저는 ‘회화’로서의 차별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라피티의 본질 자체가 변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낙서’로 보이는 그라피티도 누구 못지않은 열정과 실력으로 그린 작품이거든요. 결국 그것을 보는 사람이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인식의 차이가 아닐까요.”

커뮤니티에 선사하는 하나의 근사한 ‘선물’이 되려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여러 도시에서 작업해 본 그에게 그라피티를 그리는 데 주변의 지형지물이나 동네의 분위기 같은 외부 요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심 작가는 “작업 의뢰를 받으면, 작품을 직접 그릴 건물 벽면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진도 함께 받아 시안을 준비합니다. 현장에서 다시 시안을 보며 체크해요. 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동네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 그라피티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며, 무작정 벽면에 아무 그림이나 그리는 건 기술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생각해 보니 그의 말이 맞다.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그라피티를 그린다는 건 그가 말한 대로 그 커뮤니티에 하나의 ‘선물’을 주는 셈인데 그 지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림을 그린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까. 주변의 경관과



부산 해운대 영무파라드 호텔에 그린 〈Walk in Your Shoe 2020〉

조화되고 그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요소를 활용해 그리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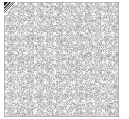
고유한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과정

흑인 모델이 한복을 입고, 그것을 직접 사진으로 담은 작업부터 심찬양 작가의 작업은 시작된다.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모델은 모두 실제 인물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흑인 모델인 8살 미국계 한국인 ‘벨라’와의 작업은 항상 즐겁고 본인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자신의 그래피티 작품을 처음부터 창작한다는 자부심. 그 시작은 바로 ‘사진’을 찍는 작업에 있었다. 이는 작업의 독창성 면에서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차이자 작품에 일종의 예술성을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단 한복을 입은 흑인의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다가, 이 구도에 맞는 분위기의 공간이나 벽이 생기면 그 사진을 참고해 작업을 시작한다. 그다음엔 벽에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 작품에 쓰이는 래커의 양도 어마어마하다. 색을 섞을 수 없는 래커의 특성상, 점 하나를 표현할 색이라 하더라도 그 색의 래커가 필요하다. 컬러 작품의 경우 보통은 40가지 이상의 색이 필요하다.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100통에서 많게는 300통의 래커를 사용한다. 페스티벌에서 몇 시간 만에 작품을 완성하는 퍼포먼스를 할 때도 있지만, 넓은 면적에 작품을 그릴 때는 열흘 정도가 걸리기도 한다. 방독면을 쓰고 크레인에 올라가 래커로 칠 새 없이 그림을 그리다가 지상으로 내려와 전체를 바라보기를 반복하는 그의 모습에서 화가, 기술자, 행위예술가, 건



축가, 조각가 등 여러 면모가 보이는 듯했다. “그래도 전 손이 빠른 편이에요. 붓으로 그리는 것보다 빠르기도 하고 래커가 물감보다 빨리 마르기도 하고요.”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준 작업의 방향성

흑인 소녀가 한복을 입은 콘셉트의 그의 그래피티를 두고, ‘인종 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평가가 많아 보였다. 이에 대한 작가 본인의 생각이 궁금했다. “인종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만큼 많은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는 겸손하게 답했다. 사실 한복 입은 흑인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심찬양 작가는 흑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실제로 그가 2016년 〈꽃이 피었습니다〉로 널리 알려지기 전에도 흑인을 그린 그림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그림이 ‘인종 차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히는 것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제 그림을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그런 시각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고, 제 작품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감 같은 것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인종 차별 문제, 남녀평등 문제, 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든 제 그림이 그들을 ‘지지’한다고 느낀다면 저는 그런 에너지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 그림을 애초에 시작한 이유는 누구에게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들이 생각한 것이 맞는 셈이죠.”

관심이 있고 재미있어 그렸을 뿐인데,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각자의 사연을 건주어 감동을 받았다. 한복도 마찬가지였다. ‘한복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라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한복을 그린 것은 아니었다. 처음엔 단순히 예뻐서 시작한 한복 그림이지만,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

너지와 감동을 받았다. 그런 피드백은 심 작가로 하여금 한복에 대해 더 알고 싶게 하고 어떤 한복이 어떤 사람에게 더 잘 어울리는지 공부하게 했다. 사람들이 ‘이유’를 주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준 셈이다.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을 그리다 보니, 제 그림을 통해 한복에 대해 처음 알게 되는 외국인이 많아요.” 그에겐 우리나라의 고유 의상인 ‘한복’에 대한 부담감과 나름의 책임감이 있었다. “한복 입은 외국인 작업을 계속할 거면 제대로 된 한복, 가장 전통적인 디자인의 한복이 필요했어요.” 그는 이런 생각을 한복 명인인 박술녀 선생께 전했고,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박술녀 명인은 흔쾌히 그의 작품에 한복을 협찬하고 있다.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한복 디자인을 보는 것 또한 그의 작품에서 하나의 감상 포인트라 할 만하다.

힙합의 한 요소로서의 그래피티

비보잉(B-boying), 디제잉(DJing), 엠싱(MCing)과 함께 그래피티는 힙합의 4대 요소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힙합’이라 하면 흔히 비트에 맞춰 랩을 하는 ‘음악’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힙합이라는 문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성, 사회 참여적인 목소리 등의 요소는 그래피티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외에도 레터링, 태깅(Tagging) 등등 그래피티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다. 그래피티에 흥미를 가질 독자를 위해 몇 가지 팁을 달라는 부탁에 그는 뱅크시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선물 가게를 지나야 출구〉와 비보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플래닛 비보이〉를 추천하며 “이제 벽만 보고 다니시게 될 거예요.”라고 웃었다.

마지막으로 한복을 입은 흑인 그래피티 작업을 언제까지 할 작정인지 물었다. “아마 당분간은 계속하겠죠. 아직 이 그림을 못 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제 그림에서 한 분이라도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면, 최대한 이 그림을 오래 그리고 싶어요.” 그는 일약 스타가 된 것 같지만,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꽃을 피울 터였다.

글 전은정_객원 기자 사진 제공 심찬양

“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든
제 그림이 그들을 ‘지지’한다고 느낀다면
저는 그런 에너지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대중음악의 숨은 자양분



“숨기고 싶은 흑역사이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국내 팝송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대중음악평론가 최규성 씨가 《뽕판의 전성시대》를 발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560쪽이 넘는 이 책은 불법 음악이 판치던 시절의 기록이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대중음악이 걸어 온 길로 보는 게 맞을 듯하다.

그가 책을 낸 계기는 2018년 청계천박물관에서 열린 〈뽕판의 시대〉 전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뽕판들을 보며 많은 관람객이 추억에 빠진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후 최 씨는 회현상가, 동묘, 청계천을 비롯해 부평, 동두천, 파주, 대전, 부산까지 전국을 헤매며 2년 넘게 뽕판을 수집했다. 그 바람에 주머니가 바닥날 정도로 수집한 1만 장에 가까운 원판과 라이선스 중 4천 장 정도를 선별해 관련 이야기를 담아 책을 완성했다. “트로트 일변도의 대중음악에 다양성을 수혈하면서 어느 정도 자양분이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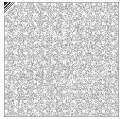
1972년 음반법 제정 이후에도 백화점 진열대에서 중심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뽕판은 전성기를 달렸다. 심지어 라벨엔 정부 발행 필증까지 붙였으니 저작권 개념조차 없던 시대의 해프닝이라 기억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불법 음악을 폐기하는 양상을 보이자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 책은 중장년에겐 추억의 대상이지만 다양한 팝송이 언제 유입됐고, 누가 번안했는지에 집중해 그 의미를 더했다. 침체 일로의 음반 시장에 회생의 기운을 수혈한 뽕판은 최근 뉴트로라는 이름을 달고 아날로그를 기억하는 이들에겐 추억의 산물이자 한국 팝 문화 형성을 증언하는 역사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것에 비해 대중음악의 기록이 열악하다고 말한 최 씨는 현시대에 던지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100년이 넘는 대중음악사에서 다양한 장르가 공존하는데도 아이들과 트로트 등 일부만 방송하는 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다양한 체질로 개선해야만 음악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최규성

대중음악평론가



최규성은 강릉KBS 어린이합창단 단원을 거쳐 《한국일보》 사진기자와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대중가요연구소 대표와 대중음악평론가로 활동한다. 주요 저서로는 《대중가요 LP 가이드북》(2014), 《골든 인디 컬렉션》(2015), 《걸그룹의 조상들》(2018)이 있고, 공저로는 《음악가의 연애》(2016), 《한국의 인디레이블》(2009),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2008) 등이 있다.



“기억 속에 잠들고 있는 추억을 되살려 드릴게요.”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 창작공간인 서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비대면 프로그램 ‘문 앞의 예술놀이’(8월 3~28일)를 이끈 유소영 작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몇 달간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뒤로하고 개학을 시작했는데 불안감을 완전히 떨구진 못했다. 원상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예전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이젠 쉽지 않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자 집에 갇혀 있는 아이들을 본 유 작가도 기존에 얼굴을 마주하던 방식에서 방향을 틀었다. 올해 초, 센터와 함께할 7인의 예술가로 뽑힌 그는 지속된 고립에 아쉬움을 느껴 ‘무한 공간 저 너머로 해피 스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망가지거나 잊힌, 더 이상 함께 놀 수 없는 장난감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장난감을 보내준 아이들에겐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예술놀이 키트가 배송된다. 코로나19 때문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교육을 멈추기보단 “비대면이라도 교감을 쌓겠다”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직접 만나게 해줄 수는 없으니 사라져가는 기억에 숨결을 불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유 작가는 보내온 장난감으로 3D프린팅을 거쳐 미니어처와 블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발송했다. 아이들은 블록으로 장난감들이 놀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작가는 이것을 디지털 공간으로 구현해 준 것. 온라인을 통해 장난감이 되살아나고 꺼져가는 추억을 재생하는 작업은 고립으로 단절된 아이들의 꿈을 현실로 이루게 한다. 졸업 이후 줄곧 미디어아트와 로봇을 설치하는 작업을 해온 그는 단절을 이겨내기 위해 비대면 방식을 생각해 낸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속내를 드러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택배를 통해 예술 교육을 하고 있지만 얼굴을 마주하며 진행해야 효과가 크죠. 하루빨리 비대면 방식이 멈추길 바랄 뿐이에요.”

글 이규승_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디지털로 구현한 옛 추억

유소영 작가



유소영은 덕성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서울미디어대 학원대학교 융합미디어학과를 졸업했다. 주요 전시로는 〈나방의 춤〉(2019),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글로벌 구애전〉(2016~2017) 등이 있으며, 공연과 협업 프로그램 ‘로봇을 이겨라’(2015, 2017)를 진행했다. 교육 프로젝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드림 아트랩 4.0’(2019)에서 로봇틱 아트 강사로 활동했다.

한강 모래톱 작은 섬
난초(蘭草)와 지초(芝草)
무성한 이곳에
사람들은 욕망의 잔해를
쌓고 쌓아 해발
구십하고도 팔 미터
쌍둥이 산을 만들고 나서야
후회를 하였다.
시간은 용서를 구할 수 있었나
지금, 난지도에
가을날 으악새 소리
염화시중(拈華示衆)의 찰나

*난지도는 철새 도래지로 한때는 신혼여행지로도 각광받았다.
1978년 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서 전례 없는
쓰레기 산으로 변화했으나 1994년부터 환경보호에 나서면서
서울의 대표 환경생태 공원이 되었다.

〈난지도(蘭芝島)〉

글·사진 김영호_서울문화재단



본래의 취지 살린 실효성 있는 법안 제정을 원한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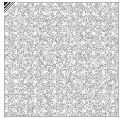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촉발되어 예술계와 국회의 주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지원으로 제정이 추진돼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 추진 현황, 수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 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공청회가 열렸다. 예술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법률로 확실히 보장받고 성평등한 문화 현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인 공청회의 내용을 소개한다.

일시	2020년 9월 11일 (금) 오후 2~4시
장소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 생중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도종환·유정주·김영주 의원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입법 추진TF
사회	이동연 예술인 권리보장법 입법 추진TF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제	황승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박선영 문화연대 팀장
토론	정윤희 시각분야 작가,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
토론회 영상	youtu.be/Am0Ytxqt3x0

발제 1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 황승흠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이렇게 총 6개 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장은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대한 개념 정의로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과 동일한데요. 다만 법안 수정을 통해 범위가 축소됐습니다. 업으로 하기 이전 단계나 직업을 찾고 있는 단계는 삭제했습니다. ‘예술 활동’ 역시 예술인 복지법의 ‘창작’ ‘실연’ ‘기술 지원’ 영역 중심이지만 기획과 비평 작업은 ‘창작’, 연습과 훈련 과정은 ‘실연’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예술교육 활동’은 보호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장에는 예술인의 권리 선언이 있고, 예술 활동의 방해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공정성 침해 금지가 규정돼 있습니다. 20대 국회 제출 법안과 비교해 형사처벌과 구제 조치 조항 중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발의됐습니다. 3장에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예술지원기관의 책무를 규정한 다음 불공정행위 금지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술인 복지법의 불공정행위 금지 제도를 가져왔습니다. 예술사업자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도 불공정행위의 주체로 보았고, 불공정행위 유형을 확대해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넣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결정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하게 만드는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예술인조합과 활동방해 금지인데요. 2명 이상의 예술인이 예술인조합을 만들 수 있고, 교섭 대상은 예술사업자, 국가기관, 예술지원기관이며 활동을 방해하면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장에서 성희롱·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 활동’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예술인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예술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예술인이 아닌 사람이 가해하는 경우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구제 절차를 위해서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각각 설치합니다. 문체부 소속으로 권리보장위원회는 공개, 피해구제 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 조사의 특수성과 전문가 구성 측면에서 구분해 절차를 진행하고, 조사와 사무처리 기구는 예술인보호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예술인보호관’은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개방형 직위로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구제 절차는 신고·조사·의결·구제 조치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예술인보호관은 신고 사실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절차를 종결하거나 구제 및 시정조치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각 위원회는 보고를 검토하고 판단해 구제절차를 종결하거나 문체부 장관에게 구제조치를 요청합니다. 문체부 장관은 서면으로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징계를 요구합니다. 행정처분 효과를 위해 장관이 대외적인 구제조치를 직접 하는 체제를 취했습니다.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중단 또는 배제할 수 있는 조치를 했습니다. 중단 기간은 초안의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했습니다. 불공정행위는 합의를 통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시정명령을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은 신고자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제 2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의의와 과제 박선영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쟁점 사항을 20대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 첫 번째, 예술인의 정의와 관련해 본안에서는 예술교육이나 훈련받는 과정, 예술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까지 포괄했지만, 수정 과정에서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축소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예술인과 차이가 있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은 복지의 수혜 대상을 정하다 보니 엄격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지만,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보편적인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법으로 피해 볼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더 보호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독립적인 사무수행’이 위원회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됐는데요. 국가기관을 감시할 위원회의 독립성은 이 법의 핵심임에도 이 조항이 빠졌습니다. 세 번째, 예술인보호관의 권한 축소 문제입니다. 개정안에서 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절차 종결 권한을 예술인보호관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예술인보호관의 권한이나 위상 정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과 처벌에 관한 조항이 거의 삭제됐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직권남용죄 등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처벌 조항을 넣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건데요. 직권남용죄는 예술 활동 방해를 처벌하는 데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관련자 대부분이 직권남용죄로 징계되

온라인으로 중계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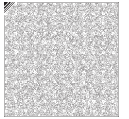
고 있는데요. 직권남용죄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직무상 범위가 명확하게 포함돼야 하고, 지시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규명돼야 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2020년 1월 30일 김기춘의 대법원 판결에서 예술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불법성 판례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힘듭니다. 제발 방지를 위해 처벌 조항은 매우 중요한데 충분한 논의나 협의 과정 없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수정되고 삭제된 안이 예술인 권리보장법 본래의 가치와 목적을 제대로 살려낼지 의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2019년 4월 19일 발의된 원안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아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논의와 협의를 거쳐 올라온 법입니다. 원안도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 조치에만 집중된 한계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과 예술정책의 기본법적 성격으로 예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완하는 법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해구제위원회, 권리보장위원회, 예술인보호관의 정책적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작동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의 확실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4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대안이나 해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문체부나 정부가 내놓은 안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통과가 그동안의 비판을 종식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이 들고요. 수많은 수정 과정이 있었음에도 예술 현장과 협의 없이 그

냥 다시 발의한 점이 아쉽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변화의 시작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술인과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모아 법의 제정과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이동연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예술인 정의 문제, 위원회의 독립성, 예술인보호관의 권한 확대, 삭제된 벌칙 조항에 대한 논의를 토론에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윤희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문체부와 법조계, 예술인들이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낸 20대 국회의 원안과는 다릅니다. 20대 국회 상임위가 임의로 수정한 내용을 그대로 올렸는데요. 예술 현장에서는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계에서 끊이지 않는 미투나 갑질 사건의 피해자들은 예비 예술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술 활동 방해에 대한 벌칙 조항인데 21대 발의안에서 삭제됐습니다. 각종 지원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예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자 또는 심사에 참여한 자가 돼야 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근거해 지원 심사 개입과 청탁에 대한 처벌 조항이 적시 돼야 합니다. 감싸미 지원 심사는 문화예술계에 권력 불평등이 작동하고 예술인 권리침해를 발생하게 한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왼쪽부터)
황승홍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박선영
문화연대 팀장,
정윤희
시각분야 작가·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리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독립적 사무국의 수행 근거를 삭제했지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상근 전문위원을 두고 독립적인 사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 관련 전담 업무는 간섭과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체부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활동을 침해하는 공직자 혹은 예술지원기관에 대한 정확한 처벌 내용이 없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도 권리침해에 대한 벌칙 조항이 공무원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존재해야 하는데요, 기존 벌칙 조항의 삭제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수정을 통해 부활시켜야 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블랙리스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성미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이 권리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에서는 첫 번째, 프리랜서 예술인이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성희롱·성폭력 해결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 창작 환경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술계 전체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요, 세 번째, 왜 예술인의 성폭력만 별도의 법으로 다루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인의 경우 이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예술인보다 훨씬 강력한 법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21대 발의안에서 빠진 예비 예술인의 법적 포섭이 필요합니다. 예비 예술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예술계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교육·훈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비 예술인을 어느 정도 포괄한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야 합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 '예술교육 활동'과 관련한 성희롱·성폭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성 평등기본법의 성희롱 정의에 프리랜서 예술인은 배제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 정의에는 업무관련성,

고용,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예술 활동, 예술교육 활동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성희롱' 피해는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요, 20대 발의안대로 '성희롱·성폭력'으로 명시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재정지원 중단 배제 대상은 성희롱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폭력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현실적으로 재정지원 중단이 유일한 조치인데 실제 성폭력 신고 비율은 5%가 안 됩니다. 사법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구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 처벌로 보기도 하는데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성폭력도 정직, 감봉, 해임, 파면 등의 징계 조치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면 별도로 고소해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벌칙 조항도 과태료 3000만 원, 1000만 원, 재정지원 중단 최장 10년이 과하다고 줄였는데요, 과태료 500만 원, 300만 원도 적고, 재정지원 중단 최장 5년도 너무 짧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징계 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안이 있어야 사각지대에 있는 권리침해가 구제되고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종진 먼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사회보장 역할이 추가돼야 합니다. 현재 거의 절반이 구제 피해 신고 조항입니다. 예술인의 다수는 프리랜서 혹은 개인사업자라 사회보험 적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조 3항에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합니다. 최근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으로 일부 직종에 대한 지원 논의가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블랙리스트 때문에 차별·금지 조항이 부각됐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평등 대우의 원칙으로 갈 필요도 있습니다. 8조에서 예술지원사업 차별 금지 항목을 나열 하는 대신 핵심 조항에 근거한 차별과 필요한 내용 삽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4장과 5장에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실태조사 혹은 구제 신고 등만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핵심 영역 중 하나는 인격권을 침해받는 괴롭힘입니다. 16조 이하의 '성희롱·성폭력' 범주에 괴롭힘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에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가 3가지 항목인데, 10조 3항에서 신체적 '안전' 다음에 '건강'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을 권리가 추가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21조 권리보장위원회가 9명 이내인데 15명 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요. 지난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대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리보호위원회에도 2030세대 예술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구제 피해, 권리 보장 관련 권한은 없는데 권리 보장의 심의·자문 역할까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술인의 생활과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상 사회보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다만 예술인 복지법과 어떻게 충돌하고 상호보완적인지는 추후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신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도입한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예술계에 블랙리스트가 횡행한 이유는 작품 및 활동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는 위험이 다른 분야보다 높다 보니 정치적으로 의도적인 개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컸다고 보고요. 작품 활동에 대한 평가 역시 주관적일 수 있는 위험이 높다 보니 상당한 권한이 개인에게 주어졌고, 아무런 설명과 책임 없이 갖게 된 권력이 성폭력의 토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예술인의 범위를 넓혀서 정의한 20대 법안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권리 구제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제2장과 4장의 금지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예술 활동을 수행하고 있던 자'로 정의하면 이 사람이 예술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없이 모두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희롱의 핵심은 성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다른 법률

의 성희롱 정의에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조건인데 빠졌으니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가 16조 2항에 더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초안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신분 범죄였는데 21대 안에서는 기존의 업무방해죄나 직권남용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모두 과태료로 변경됐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형평성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참고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검찰에서 블랙리스트를 범죄로 보고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가 과태료 대상으로 바꾸면 원래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고 진행 중인 재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존 범죄와 중복된다는 비판은 직권남용죄의 문제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존 범죄가 블랙리스트를 예방하지 못해 새로운 범죄를 만드는 것이고, 저는 '공무원 직위 남용 기본권 침해죄'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기춘, 조윤선 밑에서 서투른 아이디어를 정교하고 극악하게 만든 공무원은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직권남용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진 권한을 남용해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유죄가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언제 또 이런 일이 재발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통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위헌적인 행위를 유죄로 규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처벌을 복원하는 쪽으로 법안을 개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경미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면서 초기에 담겨 있던 예술인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 전반을 기술한 기본 이념이 삭제되면서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협소한 법의 수준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권리구제에도 명백한 한계를 가집니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권력형 위계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예술계로 진입하려는 집단을 제외하면 안 됩니다. 포괄적으로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예술인 복지법의 상위법 개념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예술인보호관의 역할은 침해행위나 신고 사항의 심의·의결 역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입법 취지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점도 문제이고 실효성도 의심스럽습니다. 처벌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징적인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체부와 국회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발의 배경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지원사업을 빌미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예술인을 옥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예술계 내 성희롱·성폭력 역시 가해 주체만 다들 뿐 가해행위는 블랙리스트와 유사합니다. 예술인들은 주체가 되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피해구제로 법안을 일차원화하고 예술인을 타자로 대상화한 것은 그래서 매우 유감입니다. 법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증진을 모색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계획이 권리구제와 동등한 지위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 복지, 예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법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예술인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동연 이제 박선영 팀장님께서 토론에 대한 소감과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들의 짧은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박선영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정책이나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더는 창작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정책을 수행하는 예술인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참여하고 개입하고 활동하는 주체로 설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핵심은 기존의 국가 중심 독점적 권력 구조를 예술 현장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체들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처벌 조항을 만드는 과정이 꼭 지켜졌으면 합니다.



정윤희 예술인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 사실을 밝히고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순간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혹은 자신만의 문제라고 좌절하면서 살아갑니다. 법률로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를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미 20대 국회 발의안을 기준으로 재수정되면서 표현의 통일성과 취지가 없어지는 부분을 누군가가 짚고 가야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 문체부에서 취지를 잘 설명하면 좋겠고요. 실제로 모든 성폭력 행위가 사법기관으로 가지는 않고, 조직에서 책임을 다해 구성원들끼리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법이 있으니 무조건 판결을 받아 오라는 식이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설득해서 실효성 있는 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경미 이런 자리에 나오면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와 지위가 얼마나 바닥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국회의원, 문체부 관계자들은 이 법이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얼마나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연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조속하게 제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꼭 들어가야 할 조항이 삭제된 채 제정되는 것은 예술계가 원치 않습니다. 빨리 추진하되 내실 있게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앞으로 문체부, 국회, 예술계 현장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 갈무리

(왼쪽부터)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동연
예술인 권리보장법
입법 추진TF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오경미
문화예술노동연대
사무국장

코로나로 틈새시장 찾은 저가 미술품

침체된 미술계에 활력 불어넣은 온라인 미술 시장

집콕족,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중저가 상품으로 실내 공간 꾸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문화 시장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미술품으로는 저가(低價)에 해당하는 200만 원 이하 작품들이 온라인 경매에서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는 수치로 확인된다. 국내 미술시장 전체 거래를 집계하는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K-Artmarket)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경매시장 규모는 49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3억 원의 60% 수준이며 2018년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를 온·오프라인으로 분리했을 때, 오프라인 경매 거래액은 지난해 상반기 692억 원에서 368억 원으로 324억 원어치가 증발해 버린 반면 온라인 경매는 작년 121억 원에서 123억 원으로 소폭이지만 오히려 늘었다. 미술경매회사 케이옥션의 올해 상반기 200만 원 이하 낙찰작 수는 3,118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여 점 이상 증가했다. 서울옥션의 경우는 오프라인 경매와 고가 미술품 거래가 저조한 가운데서 200만 원 이하 작품의 온라인 경매만 코로나 타격 없이 전년 수준의 거래량을 유지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팔리는 이유는 뭘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임을 무시할 수 없다. 전염병 확산을 우려해 '집콕족(族)'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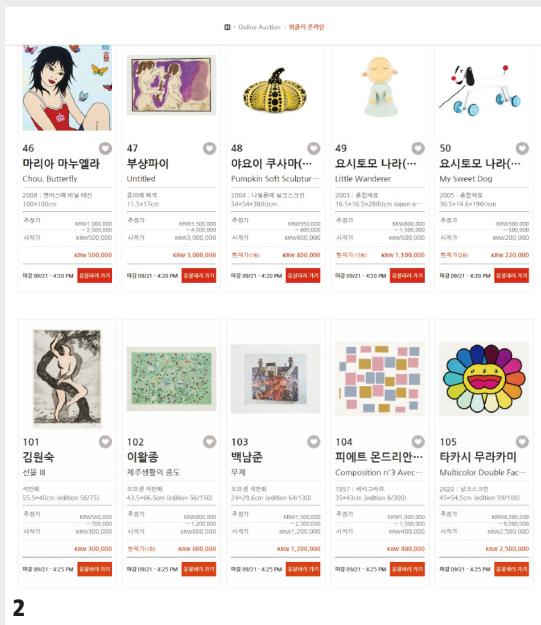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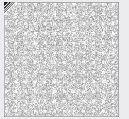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할 필요도, 출입자 명부에 이름을 적을 필요도 없다. 애당초 전시장 가는 길의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염려할 필요도 없었으며, 밤이건 새벽이건 심지어 어디에서든지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온라인 미술품 경매 얘기다.

증가했고,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잦아졌다. 코로나 이후 인테리어 관련 산업이 2~4배가량 성장했듯 집을 '특별하게 꾸며야 할 곳'으로 여기는 수요가 늘어났다. 과거에 비싸지 않은 작품 한 점으로 집안 분위기부터 기분까지 밝아지고, 화상회의의 배경으로도 맛있는 벽보다는 개성 있는 작품이 낫다는 생각이 '그림 소비'를 자극한 것이다.

코로나 시대 이후 '랜선 관람'과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됐다지만 수천만, 수억 원을 호가하는 미술품을 클릭만으로 구매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잘 알려진 작가의, 익히 아는 작품이 아닌 한 구매는 신중해지기 마련이다. 중저가 작품이라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200만 원 이하 미술품은 주로 국내의 유명 작가의 관화나 크기 작은 소품, 중견 사진 작가의 작품 등이며 아트토이와 공예품도 인기가

온라인 미술 시장, 뉴노멀 시장의 새로운 활로 될까

낡은 벽지를 바꾸는 대신 그림을 거는 것, 즉 인테리어보다 미술품을 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투자 가치'다. 작품 구입은 공산품 소비와 달리 곁에 두고 보는 동안 '이자' 못지않은 정서적 만족감이 있고, 향후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일반적으로 저가 미술품의 가격 상승 폭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여기다 밀레니얼 세대(23~38세)가 미술에 주목하면서 경매에 뛰어드는 신규 컬렉터가 늘어난 것도 눈길을 끈다. 세계 최대의 아트페어인 아트바젤과 글로벌 금융기업 UBS가 발표한 '2020 글로벌 아트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고액 자산가 컬렉터 중 가장 높은 비중인 49%를 밀레니얼 세대가 차지했다. 이들의 특징은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다는 것이며, 남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소비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채테크'를 놓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정판 운동화를 구입했다 고가에 되파는 '스니커즈 리

셀(resell)' 열풍의 중심에 20대가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처음 그림을 사고자 하는 초보 컬렉터에게 온라인 거래만큼 '편한' 시장도 없다. 문턱 높아 보이는 갤러리에 쭈뼛거리며 들어가 작가나 작품에 대해 더듬거리며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 가격을 공개하는 경매시장의 투명성도 신규 구매층에게는 신뢰감을 준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경매가 조용하게 진행돼 적적할 수는 있으나 뜨거운 현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다. 물론 디지털 이미지로 보는 작품은 실제로 대면해 감상할 때의 아우라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매 회사들은 일주일 이상 출품작을 전시해 실물을 확인하게 한다.

이처럼 미술 소비의 변화가 감지되자 경매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케이옥션은 중저가 미술품이 주를 이루는 '위클리경매'를 매주 진행해 500점 내외의 미술품과 공예 및 보석 등을 선보인다. 지난해까지 두 달에 한 번씩 열던 '프리미엄 온라인경매'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올해 초부터 월 1회로 늘렸고, 지난 6월부터는 격주로 월평균 2회씩 열고 있다. 서울옥션은 저가 작품군을 이루는 신진·유망 작가를 발굴해 시작가 '0원'으로 온라인 경매를 진행하는 '제로베이스'를 기획했다. 경매시장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수요자의 취향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도록 했다. 극소수 작가들의 전유물 같던 경매시장에서 소외된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자 한 의지도 반영됐다. 0원에서 시작한 작품의 평균 낙찰액은 70만~90만 원 수준이며 낙찰률은 100%를 놓친 적 없다. 처음 개최했을 당시 낙찰 총액 3,900만 원이던 것이 지난 5월에는 1억 원을 돌파했다. 작가 유명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취향대로 작품을 택하고자 하는 고객이 늘어난 것인 동시에 새로운 작가군이 경매시장에 진입했다는 뜻이다. 저변 확대를 모색하던 미술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얻은 '뜻밖의 뉴노멀'이다.

글 조상인 《서울경제》 기자 사진 제공 서울옥션, 케이옥션

1 고차분 <다른 선택>. 고 작가는 서울옥션과 지역 문화재단이 협력한 기획경매 '제로베이스'를 통해 시작가 0원에 작품을 선보여 인기를 끌었고 이후 전속화랑 제의, 국내외 전시 참여 등의 기회를 얻었다.
2 케이옥션은 중저가 미술품을 중심으로 '위클리경매'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영화관에서 공연을 보는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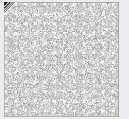
코로나 시대, 공연 플랫폼의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공연계에 다시 영상이 화두가 됐다. 다만 상반기에는 온라인 무료 공연을 통해 관객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하반기에는 생존에 무게가 실렸다. 바로 유료 온라인 공연이다. 일부에서는 동시에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다. 자체 온라인 콘텐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송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플랫폼의 오프라인 확장도 시도하고 있다.

영화관, 공연장의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다

‘거리 두기’가 중요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그간 공연장 객석 띄어 앉기는 국공립 공연장에만 한정됐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민간 공연장에도 띄어 앉기가 의무가 됐다. 대극장의 경우 객석 점유율 70%를 기록해야 수익분기점을 겨우 넘길 수 있다. 띄어 앉기를 하면 객석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다. 공연을 올리면 올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공연 영상물의 영화관 상영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영화는 스크린만 확보된다면 좌석을 한없이 늘릴 수 있다. 한 시각에 한 장소에서 한 번밖에 못 하는 공연의 시공간적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티켓 값도 2만 원 안팎으로 책정할 수 있으니, VIP석이 10만 원이 훌쩍 넘는 대극장 뮤지컬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좀 더 상황이 나으면 IPTV로 보는 온라인 공연보다 훨씬 더 큰 화면으로 몰입감도 상당하다. 지난 8월 개봉한 예술의전당 <늬은 부부 이야기: 스테이지 무비>가 공연 영상물의 영화관 상영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흥행에서는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연극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서정적 쾌감을 안겼다. 예술의전당이 작년 9~10월 자유소극장에서 대학로의 덕우기획과 손잡고 올린 <늬은 부부

이야기> 연극 버전을 영상화한 작품. 2003년 초연 이후 ‘황혼 로맨스’ 또는 ‘황혼 노(老)맨스’의 정석이라 불리는 이 작품은 노년의 정신적 사랑, 성(性)에 대해 남세스럽지 않게 다루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첫사랑보다 더 설레게 하는 봄을 시작으로 뜨거운 여름, 과실이 무르익는 가을을 지나 삶의 시소가 확실히 죽음으로 기우는 겨울로 종 종걸음을 치는 계절감을 한 공연장에 갇힌 연극의 특성상 표현하기 힘들었는데 ‘스테이지 무비’는 이를 극복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외부에서 촬영한 자연환경 장면을 ‘인서트 컷’으로 넣었다. 한국 영화 ‘프로듀서 1세대’로 통하는 영화 기획·제작자 출신인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이 관객에게 어떻게 하면 공연 영상을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할지 고민한 결과물이다. 예술의전당이 2013년 지역 문예회관과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을 영상화해 온 ‘썩 온 스크린(SAC On Screen)’의 변주이기도 하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썩 온 스크린’은 올해 상반기에 처음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했는데, 한발 더 나아가 ‘스테이지 무비’는 공연 영상 플랫폼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웹메이드 공연 영상의 존재 가치는 관객이 공연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 국립극



장의 공연 영상화 브랜드인 'NT라이브'는 연극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영상에서 공연장 객석에서 볼 수 없는 무대 바닥을 '버드 아이 뷰 샷'으로 보여준다. 이미 2015년 6월 영화사 숨이 연극 공연과 영화의 협업을 표방한 'DnC 라이브(Live)'를 론칭, 연극 〈해경궁 홍씨〉를 스크린으로 옮겨내는 등 한국에서도 공연 영상물의 영화관 상영이 시도됐다. 그때는 가능성을 실험하는 선택 단계였다면 코로나 시대인 현재는 필수가 됐다. 멀티플렉스 CGV가 지난 7월부터 매달 2편의 해외 뮤지컬 실황 영상을 상영하는 '월간 뮤지컬'도 그런 노력의 하나다.

비대면 일상 속 공연 플랫폼은 진화 중

메가박스 등의 극장은 유럽과 미국의 주요 오페라, 대형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일찌감치 영화관에서 상영해 왔다. 비용 문제 등으로 보기 힘든 해외 유명 오페라·클래식 공연을 저렴하게 볼 수 있어 마니아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연극, 뮤지컬 영화관 상영은 특정 마니아보다 더 다양한 관객층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대에 연극·뮤지컬의 플랫폼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공연과 영화 콘텐츠 시장에 국내 창작 연극의 영상화로 플랫폼을 변동·확장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9일 발표한 공공 예술기관의 온라인 강화 계획을 담은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 방안'에서 예술의전당이 실감형 기술을 결합한 공연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1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예술의전당 내 공연 영상화 종합 스튜디오 설립을 위해 32억 원도 지원한다. 예술의전당 같은 국공립극장 외에 민간 뮤지컬 제작사도 공연 중계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었다. 한국 뮤지컬 콘텐츠를 개발·제작·수출하는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주)신스웨이프의 이야기다. 9월 18일부터 온라인으로 뮤지컬 〈광염소나타〉의 세계 송출을 결정했는데, 역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을 다양화



1



2

했다. 일본에서는 아사히TV 계열사인 '테레 아사 동화(テレ朝動画)'의 특집 섹션을 통해 일본 전역에 상영한다. 특히 9월 26일 공연은 라이브 뷰잉을 결정, 한국 CGV와 홍콩 전역의 영화관에서 동시 상영한다. '슈퍼주니어' 러욱, '펜타곤'의 후이 등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출연해 가능했다. 동방신기 등 일본을 중심으로 한류스타 아이돌 콘서트의 극장 상영은 일반화돼 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 일본 콘서트는 추첨제로 관객을 뽑았는데, 영화관 상영도 관람 신청자가 너무 많아 이 역시 추첨제로 관객을 선별했다. 코로나 시대에 갇힌 공간의 한정된 좌석에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공연장에 영화관은 선택지를 늘려줄 수 있다.

글 이재훈 《뉴시스》 기자 사진 제공 예술의전당, 신스웨이프

1 지난 8월 개봉한
〈늑은 부부이야기:
스테이지 무비〉

2 뮤지컬
〈광염소나타〉의 한 장면

출판 창작자와 독자가 만나는 승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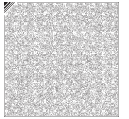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는 기획에서부터 배본, 홍보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이 더욱 힘들게 느껴질 수 있는 소규모 출판인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곳이 생겼다. 바로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이다. 출판 문화와 관련된 창업자, 기업, 입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편의 시설로 꽉 차 있는 이곳은, ‘플랫폼(platform)’이란 단어의 뜻처럼 창작자를 위한 공간일 뿐 아니라 창작자와 독자가 만나는 승강장 역할까지 기꺼이 하고 있다.

출판업계의 중심지 홍대 거리에서

지난 8월 개관한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는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 코스테이션(CO-STATION) 2층과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라 불리는 홍대 거리에 출판 창작과 관련된 공간이 자리한다는 것 자체로 인상적이다. 사실 홍대 주변에는 오래전부터 크고 작은 출판 관련 회사가 자리를 잡고 발전해 왔다. 플랫폼 P는 이러한 명맥을 그대로 이어 가는 것이기도 하다. 2층은 문화·창작공간으로, 북앤라운지와 카페, 멀티미디어실, 편집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공간이다. 3층은 창업 초기 출판사와 관련 스타트업 기업, 1인 창작자 등 출판 문화 분야 종사자들이 입주해 있는 작업 공간이다. 어찌 보면 홍대 거리의 오랜 지역 특색인 ‘인디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셈이다. 인근의 지역 서점과 경의선책거리 등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 또한 계획하고 있으니 새로운 출판 문화의 거점을 기대해 봐도 좋겠다.





출판 창작자를 위한 넓고도 세밀한 공간

플랫폼 P는 연면적 2438.98㎡(약 739평)로 널찍한 공간에 새로 조성되었음에도 자칫 놓치기 쉬운 곳까지 꼼꼼히 신경 쓰고 있다는 점에 마음이 갔다.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 출판 과정과 맞닿아 있는 공간 구성이다. 디자인 요소가 중요한 출판 창작자들의 공간인 만큼, 넓은 공간을 곡선과 직선을 이용한 조형적인 요소로 꾸며놓았다. 단순히 작업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창작자들의 작업을 돕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살핀 인상이었다.

2층의 북앤라운지는 일반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독립서점에 대한 소개와 함께, 독립서점에서 큐레이션 한 책들을 접할 수 있다. '아카이빙 미디어' 시스템도 하나의 볼거리다. 원하는 독립서점의 이름이 적힌 큐브 형태의 칩을 골라 장치에 삽입하면 해당 서점의 정보와 큐레이션의 이유 등을 모니터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종이 에바로 출력해 가져갈 수도 있다.

북앤라운지에는 입주사들이 추후 출간할 책들도 진열해, 자연스럽게 독자와 소통할 예정이다. 그 외에 주목할 만한 곳은 입주자들을 위한 멀티미디어실

1 2층 입구에 위치한 플랫폼 P의 북앤라운지

2 2층에 위치한 '아카이빙 미디어' 시스템. 독립서점의 이름이 적힌 칩을 장치에 삽입하면 모니터 영상에 정보가 나타난다.

과 편집실이다. 유튜브나 SNS를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현시대에 걸맞게, 간단한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 등이 가능한 작은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본격화된 비대면 시대에도 꼭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출판업 종사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래 고민하고 살핀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3층에는 효율적인 사무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출판사뿐 아니라 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전자책 제작자·북튜버 등 20개 입주사와 32명의 1인 창작자가 입주해 있다. 작은 사무실 형태의 부스가 열을 지어 들어서 있는데, 업무 공간인 만큼 조용하게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다. 회의실 또한 마련되어 있어 단체회이나 외부 방문자들을 포함한 회의가 가능하다. 입주사들의 편의를 위한 주방까지 살뜰하게 마련돼 있다.

소통하는 곳, 소통을 위한 곳

필자가 플랫폼 P를 방문한 날엔 입주사 대상 멘토링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사전에 입주사들이 제출한 출판 전반에 대한 궁금증에 센터장이 답하는 자리였다. 김현호 플랫폼 P 센터장은 이날 자리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것은 인정하고 함께 이야기해 가겠다”며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 플랫폼 P의 소통하는 분위기와 정체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외에도 입주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플랫폼 P는 출판이라는 주제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지 못한, 출판 창작자들을 위한 첫 번째 복지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의 이름이 플랫폼인 만큼, 많은 독자와의 만남도 고대하고 있다. 책을 만들고 읽고 즐길 거리가 충분한 플랫폼 P의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해 볼 일이다. 앞으로 출판 창작자뿐만 아니라 독자를 위해 북라운지와 카페를 개방할 계획도 갖고 있다. 북 콘서트 등 독자와 함께할 수 있는 행사도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준비된 공간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길 기다려 본다.

글 권민경·시인, 《베개는 얼마나 많은 꿈을 견뎌냈나요》 저자 사진 제공 타벌사진관, 플랫폼 P

친근하고 감각적인 창작 뮤지컬의 세계로

뮤지컬 <베르테르>와 <시데레우스>

국내 창작 뮤지컬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창작 뮤지컬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관객 덕분이다. 전염병 확산이란 극한 상황에서도 이들의 관심은 쉽게 식지 않는다. 특히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베르테르>, 재연 무대를 올리는 <시데레우스>엔 관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친숙한 캐릭터를 내세우면서도 참신한 시각으로 재해석해 호평받고 있다. 그와 동시에 아름다운 음악, 감각적인 무대 구성을 결합해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 해당 공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뮤지컬 <베르테르> 공연 장면

깊어지는 가을, 지독한 사랑에 빠지다

<베르테르> | 8. 28~11. 1 | 광림아트센터 BBCH홀

매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오면 <베르테르>가 무대에 오른다. 한 사람을 강렬하게 갈망하는 베르테르와 함께 지독한 사랑의 열병을 앓고 나면, 한층 더 성숙해진 기분이 든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창작 뮤지컬 제작이 거의 이뤄지지 않던 2000년에만 들어졌다. 당시 해외 라이선스 공연을 주로 보던 관객들은 <베르테르>를 통해 창작 뮤지컬의 매력을 알게 됐다. 창작 뮤지컬 최초로 작품 동호회가 만들어졌을 정도다.

원작은 학창 시절 한 번쯤 읽어봤을 법한 독일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순수한 청년 베르테르가 인형극을 하고 있던 여성 롯데의 싱그러움에 매료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베르테르는 롯데를 만나 주체하기 힘들 만큼 폭발적인 사랑의 감정에 휩싸인다. 하지만 곧 롯데에게 약혼자 알베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한다. 어떤 계산도 없이 사랑에 온전히 집중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는 베르테르. 이 모습은 아슬아슬하고 불안전해 보여도 깊은 연민과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공연에선 5인 5색의 베르테르를 만날 수 있다. 2002년부터 이 작품을 맡아온 간판 배우 엄기준의 농익은 베르테르, 카이의 세련된 베르테르, 유연석의 순박한 베르테르, 규현의 애절한 베르테르를 감상할 수 있다. 지난 4월 tvN 오디션 프로그램 <더블 캐스팅>의 우승자가 된 나현우도 베르테르 역으로 처음 뮤지컬 주연을 맡았다. 오랜 시간 앙상블로 연기해 온 나현우의 목소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조광화 연출은 5인의 베르테르 각각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며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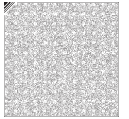
<베르테르>의 질은 감성은 서정적인 음악과 만나 더욱 애절하게 다가온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 현악기 중심의 오케스트라 연주는 때론 가을 바람처럼, 때론 격정적인 파도처럼 울려 퍼진다.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베르테르의 절절한 노래와 아름다운 선율이 귓가에 계속 맴돌 것이다.

별이 쏟아지는 밤, 광활한 우주에 빠지다

<시데레우스> | 8. 12~10. 25 |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1관

별이 가득한 우주 속에 있는 것만 같다. 뮤지컬 <시데레우스>는 관객에게 신비롭고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이 작품은 2017년 아르고-한예중 뮤지컬 창작 아카데미 독회에서 처음 공



뮤지컬 〈시데레우스〉의 공연 장면

개됐다. 이후 충무아트센터의 스토리 작가 데뷔 프로그램 ‘블랙앤블루’를 통해 개발됐다.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해 초연을 올렸다.

〈시데레우스〉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실존 인물들이 등장한다. 바로 이탈리아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독일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다. 작품은 이들의 이야기에 상상력을 가미해 만들어졌다.

이야기는 갈릴레오의 딸이자 수녀인 마리아가 편지를 모두 불태워 달라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편지는 모두 케플러로부터 온 것이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천동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던 17세기, 갈릴레오와 케플러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하지만 시대의 견고한 벽에 부딪히며 이들의 고민도 깊어진다.

그동안 공연에선 잘 다루지 않던 별, 우주, 과학을 소재로 삼았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다. 작품은 전문적인 용어와 이론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아름다

운 별을 바라보며 심취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데 집중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마주하고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려 하는 이들의 용기와 의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관객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그렇다고 해서 극 중 대화가 무겁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두 사람의 유쾌하면서도 열정적인 대화를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함께 미소 짓게 된다.

갈릴레오 역은 박민성·임병근·이창용 배우가 연기하고, 케플러 역은 정욱진·기세중·정휘 배우가 맡았다. 마리아는 임찬민·홍지희 배우가 연기한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 연극 〈환상동화〉 등을 올린 김동연 연출이 초연에 이어 재연 무대도 맡았다.

이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무대세트다. 반구형 무대는 우주를 고스란히 옮겨 담은 것 같다. 무대 스크린엔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눈에 비친 반짝이는 별들이 펼쳐진다. 객석까지 쏟아지는 별빛 조명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우주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낭만적인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글 김희경_《한국경제신문》기자 사진 제공 CJ ENM, 주식회사 랑

단절의 시대, 과거와 현재를 상상력으로 불러들이다

전시 <Once Upon a Time>과 <April Fool 2020>

단절의 시대다. 작업실에 틀어박힌 시각예술가들은 일상과 과거의 역사를 상상력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올가을 서울 화랑가에는 이런 맥락에서 주목되는 국내외 작가의 전시가 펼쳐진다. 한민족의 고대사 풍경을 사실주의(리얼리즘)의 눈길로 떠올리며 재현한 최민화 작가의 초대전 <Once Upon a Time>과 코로나가 엄습한 일상 속 자화상을 포착한 네덜란드 사진작가 어윈 올라프의 신작전 <April Fool 2020>이다. 두 작가의 작품은 소재와 기법, 시각이 크게 다르지만, 색다른 공통점도 갖고 있다. 작품이 품은 화두가 이 시절 예술가들의 고민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며, 창작 과정에서 과거 미술사적인 유산을 심분 활용해 재해석한다는 점이 그렇다.

※ 해당 전시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민화의 <호녀>(2020)

1980년대 투사 작가가 메이저 화랑에 내건 고대사 그림

<Once Upon a Time> | 9. 2~10. 11 | 갤러리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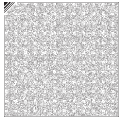
최민화 작가는 시대와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한다는 사실주의(리얼리즘) 그림의 본령을 평생 지켜려 애써왔다. 1980년대 청장년 시절엔 진보 미술 진영의 현장 활동가로 일했다. 도심 거리의 민주화 시위에 쓸 걸개그림을 만들고 만화운동을 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노제에서 대중에게 선연한 기억을 남긴 열사의 대형 부활도가 그의 작품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 80년대 거리 투쟁의 기억과 그 시절 소외된 도시 례펜 청년들의 일상을 분홍빛 화폭에 담아내며 낭만적 사실주의를 한국 현대미술사에 아로새겼다.

이런 전력에 비춰 서울 시간동 갤러리현대에서 지난 9월 초 마련된 그의 개인전 <Once Upon a Time>은 격세지감을 일으킨다. 30여 년 전 이른바 '열

혈 운동권'이던 그가 국내 최고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다는 사실은 시대의 정서가 바뀌었음을 알려준다. 1990년대 말 이후 조선 상고사 연작에 몰두한 작가는 2018년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한 뒤 리얼리즘 화가로 재조명되면서 이를 주목한 화랑 쪽이 1년간의 준비 끝에 초대전을 마련했다.

출품작들은 작가가 20년 이상 고대사, 미술사 공부와 국내외 답사 등을 하면서 숙성시킨 역사화다. 단군신화를 비롯해 고구려, 신라의 건국신화 등 《삼국유사》에 나오는 민족사의 시원적 사건들을 옛사람들의 몸짓과 공간의 구체적 풍경으로 펼쳐 보인다. 전통 불화, 민화, 풍속화, 힌두 미술, 르네상스 회화 등을 두루 섭렵하며 도상을 연구한 덕분에 동서고금 회화사의 특징이 두루 섞여 낯설게 펼쳐지는 화면을 만들어냈다.

환웅이 신시에 내려와 웅녀(곰)와 호녀(호랑이) 가운데 배필을 간택하는 장면이나 신라 시조 박혁거세가 알을 깨고 탄생하는 장면 등을 담은 그림들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도상들과 인물의 배치나 화면 구성 등에서 흡사한 구도를 보여준다. 고대 이상향을 묘사한 <신시>는 조선 후기 화가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단원 김홍도의 <군선도> 도상이 르네상스 명화의 인물 도상, 힌두 미술의 노란빛 색조와 결합된다. <호녀>의 경우 단군신화에서 토굴에 은거한 웅녀와 달리 운명을 거부하고 굴을 나간 호녀를 서구풍의 주체적 여성으로 강조한다.

동서고금의 도상들이 편집하듯 엮인 출품작들은 색조의 옅고 숨은 표현과 더불어 고대 시공간에서 펼쳐진 인간 행위의 보편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내비친다. 작가는 “민중의 정신적 원형을 담은 고대사 시·공간의 형상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난 20여 년간 동서고금의 역사, 미술사를 섭렵하며 그림의 전범을 찾는 작업을 거듭해 왔다”고 말한다.

1, 2층의 출품작 30여 점은 이런 문제의식 아래 고대의 세상과 문명을 리얼리스트의 눈길로 주시하고 재구성한 산물이다. 20년 이상 드로잉과 초벌그림, 수채화, 유화 등의 소품에 수없이 습작하며 빚어낸 고대 시공간의 이미지를 최근 1년 사이 큰 화폭에 유화로 옮겨 그린 역작이란 점에서,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독창성을 내뿜는다. 200점에 가까운 원본 습작 소품을 내건 지하층 아카이브실에서 작가가 품었을 창작의 고뇌를 짐작할 수 있다.

‘만우절’ 같은 코로나 일상 뜯어본 사진가의 자화상

〈April Fool 2020〉 | 9. 2~30 | 공근혜갤러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기반으로 작업해 온 사진작가 어윈 올라프는 지난 해까지 세계 사진계에서 가장 바쁜 작가 중 하나였다. 역사적 위인들이나 동서양 대도시를 소재로 삼아 인종차별, 폭력, 빈부격차 등의 지구촌 현안을 상징적으로 부각한 그의 연출 사진은 시장과 평단에서 모두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봄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럽에 퍼지자 그는 ‘거대한 미지의 것’이 세상을 뒤집어놓았음을 직감하곤 작업을 멈췄다. 유전성 폐질환을 앓는 터라 낯선 곳에서 숨 쉬기도 두려워 사무실 직원과 가족 외엔 만나지 않게 됐다. 그가 패닉에 빠지게 된 건 지난 3월 말 암스테르담이 봉쇄되기 며칠 전 시내 단골 슈퍼마켓에서 본 풍경이었다. 늘상 둘러보던 안쪽 선반 자리에 늘상 있던 식재료가 보이지 않았다. 상상해 본 적 없는 현실이 눈앞에닥자 공포를 느꼈다. 빈손으로 돌아온 그는 생각했다. ‘내가 4월 1일 만우절에 속은 바보였으면. 이 풍경이 속임수라면...그런 감정을 어떻게 사진으로 보여주지?’



어윈 올라프의 〈April Fool 2020, 9.45am〉(2020)

서울 삼성동 공근혜갤러리에서 9월 30일까지 열린 작가의 신작전 〈April Fool 2020〉은 이런 일화가 계기가 되어 급히 제작한 코로나 이후의 자화상 사진들로 이뤄졌다. 일상의 고통스러운 변화에 부딪힌 작가가 느낀 격렬한 공포감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다는 갈망을 담아 연극적 알개로 만든 연출 사진 10여 장이 나왔다. 작가는 작품에 특정 시공간을 설정했다. 4월 1일 오전 9시 15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암스테르담의 슈퍼와 거리, 공원, 작가의 방이다. 광대처럼 얼굴에 분칠하고 고깔모자를 쓴 올라프는 설정된 2시간 15분 동안 침울한 표정과 태도로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속을 지나쳐 간다. 카트를 끌고 텅 빈 주차장을 통과해 매장에 입장하지만, 텅 빈 진열대와 무표정한 직원을 두고 앞만 바라보며 서 있다. 그 뒤 적막한 공원 벤치에 앉아 숲을 바라본 그는 집으로 들어가 벽을 바라보고 자신의 뒷모습 사진을 찍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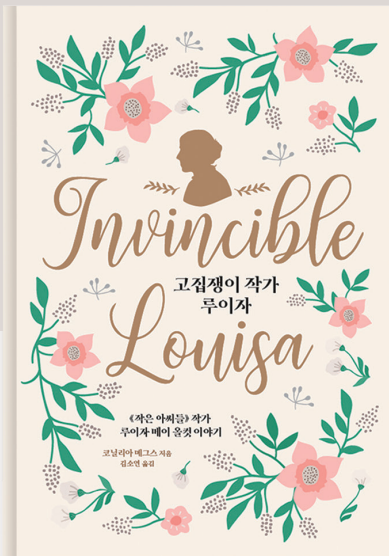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만든 위기의 풍경이지만, 사진은 불안감을 강조하지 않는다. 16~17세기 렘브란트와 페르메이르 같은 네덜란드 바로크 거장들의 정물화, 풍경화 명작을 보는 듯한 회화적 화면의 정연함 속에 작가의 쓰린 표정이 부각된다. 화면을 뒤덮는 검푸른 색조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조절된 빛이 스며들며 코로나 시대의 정서를 차분하게 바라보도록 시선을 이끈다. 올라프는 서면 인터뷰에서 “미지의 압박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마비된 느낌을 담아낸 것이 이번 신작”이라면서 “광대 분장과 고깔모자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나 자신의 감정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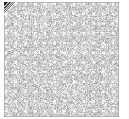
글 노형석_〈한겨레〉미술·문화재 전문기자 사진 제공 갤러리현대, 공근혜갤러리

소녀들의 이야기를 빚어낸 소녀들의 인생 이야기

책 《고집쟁이 작가 루이자》와 《하우스 오브 드림》

코로나 사태로 해외여행이 요원해졌지만 책을 읽으면 어디로든 떠날 수 있다. 어떤 책들은 서울 도심을 걸으면서도 어린 날 마음속에 만들고 가꿨던 자그마한 ‘세계’로 떠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작은 아씨들》이나 《빨강머리 앤》처럼 어릴 적 수십 번씩 읽었던 책들이 특히 그렇다. ‘어릴 적 그 책’을 다시 읽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 그 책을 쓴 작가들에게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한 소녀들의 이야기엔 그를 빚어낸 또 다른 소녀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다.





루이자 메이 울컷의 이야기

《고집쟁이 작가 루이자》 | 코닐리아 메그스 지음 | 김소연 옮김 | 월북
미국 작가 코닐리아 메그스의 《고집쟁이 작가 루이자》는 《작은 아씨들》을 쓴 루이자 메이 울컷(1832~1888) 평전이다. 메그, 조, 베스, 에이미... 최근 그레타 거윅 감독 영화로도 다시 만들어져 우리에게 친숙한 이 《작은 아씨들》 네 자매의 실제 모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울컷은 자기 자매들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썼다. 작가를 꿈꾸는 말괄량이 둘째 조가 울컷의 본신이다.

이상주의자이자 사회운동가인 아버지, 여성인권과 노예해방을 위해 싸우던 어머니 사이에서 네 자매의 둘째로 태어난 루이자 메이 울컷은 ‘여자다운’ 성격의 언니 애나와는 달리 수줍음이 많았고, 또래보다 눈에 띄게 키가 큰 데다 지나치게 크고 투박한 손과 발을 부담스러워했다. “둥근 어깨와 긴 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는 망아지 같은 소녀”인 ‘작은 아씨들’의 조는 울컷 자신을 투사한 것이다. 조는 남북전쟁에 종군 목사로 참전해 집을 비운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이 사내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아쉬워하는데 이 역시 울컷의 캐릭터를 그대로 반영한다.

《고집쟁이 작가 루이자》는 책임감 강한 소녀가 가난을 원동력으로 밥벌이를 위해 글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우뚝 서는 과정을 그렸다. 책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열한 살 울컷이 가족 모두의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결심하는 장면이다.

가족을 돌보겠다고 다짐한 루이자는 작은 방에서 인생 계획을 세우며 사랑하는 가족 모두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맹세했다. 아버지에게는 안정감, 어머니에게는 평화와 위안, 그리고 햇볕이 잘 드는 방이 필요했다. 애나에게는 기회, 엘리자베스에게는 보살핌, 메이에게는 교육이 필요했다. 루이가 어떤 시련이 닥쳐도 쓰러지지 않고 자신과 한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 사실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 흥미롭다. (78쪽)

《작은 아씨들》에 등장하는 ‘옆집 소년’ 로리의 모델도 실재했다. 울컷은 병약한 소녀의 간병인으로 따라간 유럽 여행 중 스위스 도시 브베에서 12세 연하의 폴란드 청년을 만난다. 그에게 끌렸지만 자신보다는 막냇동생 메이와 더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한다. 《작은 아씨들》내용 중 유럽 여행 중이던 에이미가 브베에서 로리와 재회해 연인이 되는 것은 사실 이유 있는 설정이었던 것이다. 울컷 자신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메이가 딸을 낳고 세상을 뜨자 자신의 이름을 딴 그 딸을 맡아 키운다.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이야기

《하우스 오브 드림》 | 리즈 로젠버그 지음 | 이지민 옮김 | 아르테(arte)
《고집쟁이 작가 루이자》와 달리, 《빨강머리 앤》을 쓴 루시 모드 몽고메리(1874~1942) 평전 《하우스 오브 드림》을 읽는 데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뉴욕 빙엄턴대 교수 리즈 로젠버그는 ‘앤’이 즐겨 쓰는 말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희망의 아이콘’을 벗어난 몽고메리의 역설적인 삶을 그린다.

“노부부가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입양하려 했는데, 착오가 생겨 한 여자가 이가 온다.” 1904년 캐나다 에드워드섬, 30세 ‘병아리 소설가’ 몽고메리가 한 메모를 발견한다. 영감이 타올라 18개월간 집필에 몰두한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앤 설리는 그렇게 탄생한다. 여러 번 퇴짜맞다 1907년 한 출판사에서 출간돼 그해에만 2만 부 가까이 팔렸다. 마크 트웨인은 앤을 “불멸의 엘리스 이후로 소설 속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라 말했다. 몽고메리는 두 살 때 폐결핵으로 엄마를 잃었다. 엄격한 외조부모 밑에서 자랐다. 외로운 소녀는 찬장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친구 삼았다. 평생 계절성 우울증에 시달렸다. 글쓰기가 유일한 구원이었다. “글을 쓰지 않거나 작가가 되고 싶지 않았던 적은 없다”고 일기에 적었다. 16세 때, 재혼한 아버지 집에 살러 간다. 새어머니는 그를 하녀처럼 부렸다. 빠듯한 살림에도 손녀 교육엔 헌신적이었던 외할머니 덕에 대학에 진학해 교원 자격증을 땀다. 교사, 교열기자 등으로 일하며 글을 쓴다. 그의 결혼을 원치 않던 외할머니가 1911년 2월 세상을 떠난다. 7월, 목사 이완 맥도널드와 결혼한다. 37세였다. 남편은 조울증 환자였다. 신(神)에게 선택받지 못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 아내와 아이들도 저주받은 운명이라 확신했다. 아내의 인기를 시샘했다. 몽고메리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두 번의 출산과 한 번의 사산(死産), 두 차례 세계대전 와중에도 계속 썼다. 남편의 신경쇠약, 큰아들의 가정불화, 출판사와의 소송, 비평가들의 조롱... 고난으로 얼룩진 말년을 다작하며 보냈다. 1937년 봄 8권짜리 앤 시리즈의 마지막 《잉글사이드의 앤》을 완성한다. 1942년 4월 24일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너무나 끔찍한 상황인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 실수에도 불구하고 늘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생을 이렇게 마감하게 되다니.”

전 세계에 긍정 바이러스를 퍼뜨린 작가가 지독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쳤다는 건 아이러니다. 하지만 몽고메리는 말했다. “내 작품에 내 삶의 그늘이 들어가지 않아 정말 다행이다. 나는 다른 어떤 삶도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다. 긍정과 밝음의 전도사가 되고 싶다.”

글 곽아람_《조선일보》기자, 《바람과 함께, 스칼렛》 저자 사진 제공 월북, 아르테(arte)

백운산장 위의 기도바위에서 감음(感泣)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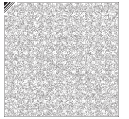


북한산 인수봉 자락 기도바위

…사람들 중에서 그 영혼이 투명하고 영험하여 의심을 품을 줄 모르는 순일한 사람이 경건하고 엄숙하며 치우침 없이 올곧을 경우, 천상과 지상 간에서 항상 이치에 합당한 도리만을 유추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知), 멀리까지 빛이 되어 광명을 널리 베풀 수 있을 만큼 성스럽고(聖), 모든 것을 훤히 비추어볼 수 있을 만큼 사리에 밝고(明), 모든 것을 죄다 간파할 수 있을 만큼 총명하게(聰) 되면 곧 신명이 강림하게 되는데 그런 남자를 박수, 여자를 무당이라 했다… -평유란(馮友蘭) 《중국철학사》 '귀신'에서 인용

이 대목을 읽다가 눈이 확 뜨였었다.

아주 오래전, 내 소설을 다 읽고 난 무당 김금화 선생님이 말씀했다. “소설가가 뭔가 했더니 무당하고 비슷하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큰 숙제를 아주 쉽게 풀어낸 사람의 우쭐함, 대단하다고 여기던 것이 실상 별것 아니라고 깨닫게 된 사람의 후련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만 새로운 건 아니었다. 내게도 그가 느낀 것과 흡사한 것이 생겼다. 무당이 하는 것과 소설이 같은 것인가? 사회적 기능이 같을까? 자꾸 의심이 갔다. 아마 나는 소설가가 무당과 같은 일을 하는 신분이라는 걸 강력하게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다. 무당으로 말하자면 자기 가족들로부터도 배척되는 미천한 계급이 아니냐. 그런데 같다니! 영리하면서도 담대한 김금화 선생님은 내 내면의 복잡하고 구질구질한 ‘차별 의식’을 확연히 보았을 것이다. 스스로는 차별에 대해 넋덜머리를 내



면서도 내면화된 계급의식을 씻지 못한 나약한 위선자였던 나. 내가 글에서나 말에서나 태도에서 보인 다양한 차별에 대한 분노는 기실 질투나 열등감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자괴감에서 놓여나기 위해 나는 더 열심히 무당의 삶과 굿을 공부했다. 그들이 믿는 여러 신과 무당이란 일을 통해 감내해야 하는 모진 모욕에 대해 취재도 하고, 굿판을 따라다녀 보기도 하고, 그들의 생활을 은연중에 살폈다. 물론 이런 이유만으로 김금화 선생님과 그의 굿을 구경하는 건 아니었다. 40~50대의 나는 존재 자체가 갈등 덩어리여서 거의 모든 시간과 나날이 고통스러웠다. 이런 고통의 대부분은 내 희망 사항과 현실의 부조화였다. 현실은 죄가 없다고 했고, 그러니 내 욕망이 문제였다.

나는 갈등의 대부분을 김금화 선생님께 털어놓았다. 그는 나의 정신적 숨구멍이고 비밀을 천지간에 연기로 흘려보내는, 보이지 않는 굴뚝이었다. 그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았다. 내가 미처 감각해 내지 못한 외로움, 부절없이 붙잡고 늘어진 욕망, 존재에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열등감 따위들. 그가 나를 북한산 백운산장으로 데려갔던 건 그런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돕기 위해서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는 1년에 두 번 산기도를 드리러 북한산으로 올라갔다. 음력 3월 3일 삼진날과 중앙절인 음력 9월 9일이었다. 돼지머리도 가져가고 소 한 마리를 상징하는 부위들을 가져가기도 했다. 그런 건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기도 했다. 제물은 따로 그의 제자가 산으로 날랐다. 삼진날과 중앙절은 해가 그다지 길지 않았다.

우리는 도선사 주차장에서 내려 깔딱고개를 걸어서 넘어 인수봉 아래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 백운산장 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했다. 한낮에도 어느 구역에선 쇠줄을 움켜잡고 오르고 내리는 길이었다. 나보다 열일곱 살이 많으신 선생님. 언제나 그렇듯 치마저고리를 입고 보온이 잘 되는 겂옷을 입은 그는 아주 침착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르고 내리는 발걸음을 했다. 그는 나보다 더 차분하게 잘 걷고 자주 내게 헛발 딛지 말라고 하며 단속했다. 그렇게 해서 캄캄해진 뒤에 우리가 닿은 곳은 백운산장이다. 한밤의 백운산장은 한낮에 등산객에게 먹고 마실 것을 파는 집과는 사뭇 달랐다. 그래서 나는 오랜 뒤에야 기도하러 갔던 곳이 백운산장이라는 걸 알았다.

때론 눈발이 날리고 진눈깨비가 흩뿌리는 날. 춥고 을씨년스러웠다. 선생님을 맞는 그곳 작은 방은 방바닥이 절절 꿇도록 뜨겁고 방 안 공기는 훈훈했다. 그와 나는 한두 시간 눈을 붙였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세수를 하고 들어와 가방에 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자다 말고 일어나 말이 어눌한 내게 그가 “선생님도 같이 가.”라고 했다. 어떤 때는 잠이 너무 깊이 들었다가 눈을 뜨면 기도를 끝내고 간단히 음복을 할 즈음이기도 했다.

옷을 갈아입은 칠순의 무당, 세월이 흘러 팔순의 무당이 되어서도 바위를 기어올랐다. 백운산장의 지붕이 눈 아래 있고 너른 바위 한쪽으로 그의 제자가 차려놓은 제물이 있었다. 그는 두어 겹 깔아놓은 방석에 꿇어앉아 초에 불을 붙이고 술을 잔에 붓고 두 손을 비비고 정을 가볍게 올리는 등의 의식을 했다. 그리고 여전히 두 손을 비비며 무어라고 주문을 외는데 얼핏 내 귀에 들리길, 우주 만물과 천지의 모든 신명을 부르고 그들에게 누군가의 이름과 사는 곳을 대며 보살피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식은 한두 시간이나 계속되고 나는 그 정결한 모습에 감읍(感泣)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감읍의 순간 내 허욕이 씻겨나갔을지 모른다. 소설가가 어찌 지성명충(知聖明聰)의 경지에 오르랴. 그저 세속의 먼지 한 톨로 제 밥값이나 제대로 하면 천만다행일 것이다.

글 이경자_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사진 김우선_시인, 지리학자

어쩌다, 작가

청년 시절 내가 믿었던 것



‘적당한 삶’은 삶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왠지 ‘진짜 삶’이 아닌 것 같아,

청년 시절엔 단일한 이상을 세우고 그것에 미친 듯이 나를 던졌다.

그 시절 내가 좇던 것은 ‘신기루’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으나, 무언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지금의 나는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명의 어른이 됐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 한 명의 작가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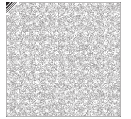


삶을 탕진한다는 것

나는 삶을 탕진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의 탕진이란 단순히 방종이라든지 소비를 의미한다고 믿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삶을 불태우고 싶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망 같은 것을 끄집어내, 내가 가장 도달하고 싶은 어떤 꿈에, 혹은 나를 사로잡

는 가장 아름답거나 진정한 것에 나를 몽땅 바치고 싶었다. 그러니까 탕진한다는 것은 삶을 가장 진정하게 사는 일처럼 느껴졌고, 반대로, 삶을 그저 심심하게 놓아두는 것, 적당하게 흘러가게 두는 것은 삶을 가짜로 사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이 청년 시절 나의 믿음이라면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매일같이 열정을 노래하는 음악을 들었다.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평판이라든지, 인생의 잡다한 기준이라든지, 현실을 위해 챙겨야 하는 구차한 요소들은 그저 다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부지런히 소위 '스펙'을 쌓고, 취업 스테디에 참여하고, 학점 관리에 온통 신경을 쏟을 때, 나는 나의 꿈이라는 것을 향해, 오로지 그 단일한 이상만을 향해 삶의 나머지 것들을 다 불태워야 한다고 믿었다. 내게 그것은 작가가 되는 일이었다.

걷는 대로 길이 되리라 믿었던

당시만 해도, 작가가 되려면 정확히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몰랐다. 그저 내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리는 작품들을 밤을 새워가며 끝도 없이 읽고, 또 매일 쉬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쓰다 보면, 나의 어떤 막연한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가령, 헤르만 헤세의 전집을 읽고, 폴 오스터나 필립 로스의 소설을 탐독하고, 롤랑 바르르 나 발터 벤야민, 알베르 카뮈의 책을 쌓아놓고 읽고 탐구하고 고민하면서 그에 관해 끊임없이 쓰다 보면, 나도 그들과 비슷한 무언가 되어 있으리라고 막연히 믿었던 것 같다. 그래서 청년 시절 몇 년은, 몇 백 권의 책을 읽고, 몇 백 편의 예술영화 같은 것을 찾아보고, 몇 백 장의 글을 쓰면서 그렇게 보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작가가 되는 일이란, 그런 이상과는 다소 무관하게, 문예창작과 수업을 들으며 등단을 준비해야 하는 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또 꽤나 나중의 일이었다.

그래서 뒤늦게 등단 준비 같은 것을 흉내내 보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나는 오히려 나의 진정한 이상이나 꿈, 말하자면, 삶을 불사르고 탕진해 어떤 삶의 정수에 이르는 길로부터는 멀어지지만 하는 것 같았다. 합평회에 참여하고, 등단한 작가의 수업을 돈을 내고 듣고, 신춘문예 소설집을 뒤져보면서 나는 이럴 바에야 고시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런 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느낌이었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써야 한다면, 차라리 행정고시나 임용고시에 도전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어떤 내 이상으로 가는 길을 더 지켜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몇 권의 책을 되는 대로 출간하고, 대학원에 가서 더 시간을 유예시키며 나의 삶 깊은 곳에 이르는 기회를 얻고 싶었다.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은 시절

그런 식으로 청년 시절, 특히, 20대 시절이라 할 것을 알추 다 보냈을 때쯤에는, 나름대로 작가라는 것이 되어 있기도 했으나, 내가 좇던 이상 같은 것은 어쩌면 신기루 같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무래도 알베르 카뮈나 롤랑 바르르가 될 수는 없었다. 나는 그저 내가 작명한 필명이기도 한 '정지우'가 될 수 있을 따름이었는데, 내가 된 '정지우'는 내가 꿈꾸던 존재와는 여러모로 달라 보였다. 나는 말 그대로 20대를 탕진하여 30대의 정지우를 얻었는데, 과연 이것이 내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여러모로 들었던 것 같다. 결국 그렇게 몇 년을 더 보내면서, 나는 점점 막연한 이상을 좇기보다는, 그러니까 더 내 삶을 탕진하며 무언가에 이르고자 하기보다는, 그저 이 삶을 차분히 가꾸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렇게, 그제야, 나의 현실적인 위치 같은 것을 찾으면서, 내가 이 현실과 사회 어디쯤에 자리 잡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직장이든 직업이든 내가 발 딛고 설 수 있는 땅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주위의 다른 모든 이들보다 참으로 늦게도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꽤나 시시한 어른이 되어 또다시 나름의 직업이라 할 것을 찾아가는 입장에 속해 있다. 일찍이 어떤 친구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고전문학을 뒤지고 있을 때 이미 대기업에 취직해 청약통장을 만들고, 내가 별 보러 뒷산에 오를 때 작은 자동차라도 할부로 구입해서 다녔다. 그럴 때도, 나는 그런 현실 같은 것이야 아무래도 좋은 사람처럼 저 별과, 하늘과, 먼 곳에서 부르는 바다와, 오래전 세상을 묘사한 음유시인 같았던 작가들과, 저 낯선 도시를 헤매던 방랑자들과, 우주를 고민하던 철학자들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리라 믿으며 그토록 방향 같은 것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게 나의 마음을 좇는 일이란, 그야말로 '탕진잼' 같은 것이었고, 현실적으로는 내 통장에 숫자 몇 줄 찍어주지도 못할 것들이었지만, 아무래도 그 시절은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시 그런 시절을, 그때의 마음으로 누릴 수도 없을 것이고, 어쩌면 다시 태어나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삶을 그런 식으로 탕진하면서, 그토록 이상에 젖고, 꿈에 취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역시 그것으로 됐다. 그렇게 잘 살아냈으면 됐다.

글 정지우_문화평론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저자

오래 자리를 지켜온 다정한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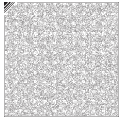
내게로 오는 공원 ④ 연희동 궁뜰 어린이공원



서울 구도심 서쪽의 지세는 인왕산(338m), 안산(무악산, 296m),
궁동산(104m)을 거치면서 점차로 낮아진다. 대덕산(126.2m)이 한 번 더 기운을 모으지만
그 너머로는 드넓은 수색, 김포 일대의 평야지대다.
지형이 낮아지면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그만큼 석양의 여운도 오래 남는다.



주택가와 상업가로가 만나는 길모퉁이에 위치한 연희동 궁뜰 어린이공원



유서 깊은 이름을 가진 공원

석양이 아름다운 동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작은 공원이 여럿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을 나선 것은 어느 일요일 저녁 무렵이었다. 구도심에는 이미 해가 서쪽의 인왕산 능선으로 막 넘어간 참이었다. 하지만 안산을 관통하는 금화터널을 빠져나오자 아직 이 일대에는 햇살이 가득했다. 연희동은 안산과 궁동산 사이에, 마치 손바닥으로 감싼 것같이 포근하게 안겨 있었다. 늦여름 저녁의 따뜻한 빛이 동네에 전체적으로 감돌았다.

주택가라는 말은 이제 점점 사라지는 듯하다. 주택이 대부분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아파트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주택이 있고, 거리가 있고, 가게가 있던 ‘동네’는, 아파트가 있고 차로가 있고 상가가 있는 ‘단지’가 되었다. 연희동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서울의 주택가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큰길 주변에는 4층 이상의 건물이 제법 많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2층짜리 주택이다. 마당이 넓고 주택의 규모도 커서 한눈에 보아도 한때 부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전두환·노태우 등과 같은 권력자, 인근 대학의 교수, 그리고 인근 한성화학교와 서울외국인학교의 존재로 짐작할 수 있듯이 다양한 외국인이 모여 살아온 곳이다. 그래서 서울이면서도 살짝 이국적인 느낌이 든다.

연희동의 중심가로는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비스듬히 가로지르는 연희맛로다.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을 비롯해, 사람들이 즐겨 찾는 맛집이 하도 많아서 붙은 이름이다. 이 길에서 한 켠 뒤로 들어가면 연희로 15안길이 평행하게 놓여 있다. 이 길 모퉁이에 있는 작은 동네 공원이 바로 이날의 목적지인 궁뜰 어린이공원이다. 공원 이름이 예사롭지 않다. 이 일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연희동 이름의 유래가 된 연희궁의 흔적이다. 조선 시대 서아궁이었던 연희궁은 지금의 연세대학교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궁동산 자락, 즉 지금의 연희동 일대에 있었다는 주장도 여전히 살아 있다. 6·25전쟁 격전지인 104고지가 위치해 있는 궁동산은 물론이고, 아마도 현시대에 붙여진 이름일 궁뜰 어린이공원, 대궐재 어린이공원, 궁말 어린이공원 등 연희동 일대의 여러 장소에는 궁의 존재를 암시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

다양한 이들에게 걸을 내준 투박한 듯 매력적인 공간

서대문구청에 따르면 이 공원은 1969년 5월 5일에 조성됐다. 50년이 넘었으니 그 연혁이 의외로 만만치 않다. 서대문구 연희동 123-5번지에 자리 잡은 면적 938.8m²의 작은 공원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래 어린이공원의 최소 면적 기준은 1500m²지만,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은 예외일 수 있다는 조건을 인정받은 듯하다. 인근 지역 지적도를 보면 기존의 개별 필지 3개 정도를 통합해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공원 자체의 디자인은 평범하다 못해 조금 진부하다. 그네, 미끄럼틀, 정자, 바닥 포장재, 각종 벤치 등이 알록달록한 색상 속에 그다지 조화롭지 않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주변의 조경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칙칙한 담장이다. 길가에는 밝은 녹색의 투시형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식재로 대체하거나 심지어 없애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공원이 인근 지역과 만나는 경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공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설계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가 보유한 최고의 디자인 자원이 이런 일에 동원되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다.

디자인적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궁뜰 어린이공원을 굳이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 매력적인 입지 조건 때문이다. 이 작은 길모퉁이는 연희동의 주택가와 상업가도가 만나는 지점이다. 남쪽의 입구 맞은편은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이고 길 건너에는 목공 공방, 카페, 그리고 부동산(이름하여 ‘공원부동산’) 등이 있다. 연희동 일대에 있는 다른 동네 공원 주변이 거의 주택인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복합적인 위치다. 이런 경우 공원과 인근 상업시설은 서로 대체재이면서 보완재이기도 하다. 앉아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굳이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원치 않는 사람들은 공원으로 가면 되고, 역으로 바로 옆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은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주말이 끝나가는 한가한 저녁, 공원을 찾은 사람은 매우 다양했다. 그네를 타는 어린이, 대화를 나누는 연인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사람까지 모두 이 작지만 연륜 있는 공원의 품에 안겨 있었다.

글·사진 황두진_건축가,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

모래알이면 언제, 반짝이잖아

안주영 감독의 <보희와 녹양>



어떤 사람은 꺾꺾 눌러 담아 배가 볼록해진 여행 가방처럼 삶이 묵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은 뒷장에 자국이 남을 만큼 꺾꺾 눌러 살아야 한다고 매일 되뇌는다.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 시련의 깊이만큼 훌쩍 자라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매일 쓰러져 아파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삶도 있고, 시시해 보여도 그 삶이 썩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특별한 시련을 겪어 훌쩍 어른이 된다는 성장담은 어쩌면 믿어보고 싶은 판타지일지 모른다.

모래알처럼 수많은, 별 볼일 없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이가 들어버린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자라는 일 역시 그냥 남다르지 않은 일상일 뿐이다.





시시해도 괜찮아

엄마와 단둘이 사는 보희(안지호)와 할머니, 아빠와 함께 사는 녹양(김주아)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친구다. 보희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은 왜소하고 섬세하며 이와는 반대로 녹양은 씩씩하고 당찬 소녀다. 엄마가 낯선 남자와 사귀는 것을 보고 가출을 결심한 보희는 이복누나 집을 찾아갔다가 어린 시절 죽었다고 생각한 아빠가 살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다. 늘 카메라로 뭔가를 찍는 녹양은 아빠를 찾아 나선 보희를 도우면서, 그 과정을 카메라에 담는다.

사라진 아빠를 찾는 동안 보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모두가 선량한 어른들이다. 누나 남희의 집에서 동거하는 성욱(서현우)은 보희에게 아빠와 함께 나누지 못했던 남자들만의 스킨십(목욕탕에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을 함께 해주며 온전한 내 편이 돼준다. 처음 만난 대학교수도, 엄마의 새로운 남자친구도, 밍살스러워 때려준 친구 부모조차 모두 보희에게 다정하다.

〈보희와 녹양〉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사람의 형상을 한 외로운 덩어리들인데, 이들은 서로의 구멍을 들여다볼 줄 안다.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거나, 둘 다 없거나, 남편이 없거나, 모두 가족 구성원이 조금씩 적다. 하지만 마음이 선량하고 넉넉해서 예쁜 사람들이다. 타인이지만, 결국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유사가족 혹은 친구로 남는다.

아버지가 간직해 온 비밀, 그것이 보희가 아버지 없이 자란 이유이고, 보희의 엄마가 혼자 남겨진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보희의 마음에는 그늘이 지지 않는다. 보희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 자신에게 남아 있는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아이가 된다.

안주영 감독은 그저 모래알처럼 특별할 것 없는 아이들을 통해, 숱한 작은 상처와 그것을 위로하는 하나하나의 진심이 모여 현재의 내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대단한 성장담은 없지만, 우리 모두 조금씩 자라나 지금의 내가 됐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긍정하게 한다.

작정 없이 자라는 우리들

영화의 도입부는, 한 남자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영화의 엔딩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보희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보희와 녹양이 투닥대면서 극장을 빠져나가면 영화 속 영화의 엔딩 타이틀이 뜨는데 그 제목이 〈보희와 녹양〉이다. 보희와 녹양의 이야기는 영화 속 영화가 끝나는 순간, 비로소 시작되는 셈이다.

사실 아무리 좋은 영화를 봐도 내 인생이 휘청거릴 만큼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안주영 감독은 이 장면을 통해 우리 삶이 영화를 보는 순간에도, 영화가 끝난 후에도 별다를 것 없이 일상적으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시시한 것 같아 보여도, 특별해지지 않더라도 시간은 흐른다. 그러니 멈춰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시간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영화에서 녹양은 영상을 찍어 뭘 하려느냐는 어른의 질문에 “꼭 뭘 해야 하느냐고, 찍다 보면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되묻는다. 소소한 아이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아빠 찾기라는 에피소드조차 요란스럽지 않게 품어내는 영화 〈보희와 녹양〉은 살짝 내 몸을 감싸준 맑은 날의 바람 같은 영화다. 그래서 격한 감동 대신 잔잔하게 설핏 미소를 짓게 만든다.

안주영 감독은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전 운동 수수께끼투성이인 세상의 기호 속에서 아이들과 덜 자란 어른의 고독과 외로움, 상실을 동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작정 없이 시시한 삶을 무시하거나 거짓말을 비난하지 않는 감독의 시선이 딱 우리의 눈높이에서 마주친다. 마음을 못나게 만드는 결핍은 흔히 타인에게 생채기를 내는 법인데, 〈보희와 녹양〉 속 인물들의 부족함은 타인을 더 넉넉하게 품어내는 결이 된다. 그 마음들이 모래알처럼 작지만, 또 반짝반짝하다.

〈보희와 녹양〉(2019)

감독 안주영

출연 안지호(보희 역), 김주아(녹양 역), 서현우(성욱 역),
신동미(보희 엄마 역)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20 NAMSAN
ARTS
CENTER

오만
시동원
자화상

극단 배다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프로그램

왕새개 이야기

작 김도영
연출 이준우

전종용
강신구
박완규
김은희
이종윤

평일 19:30
주말 15:00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10.28—11.8



WEBZin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view.sfac.or.kr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webzine.e-st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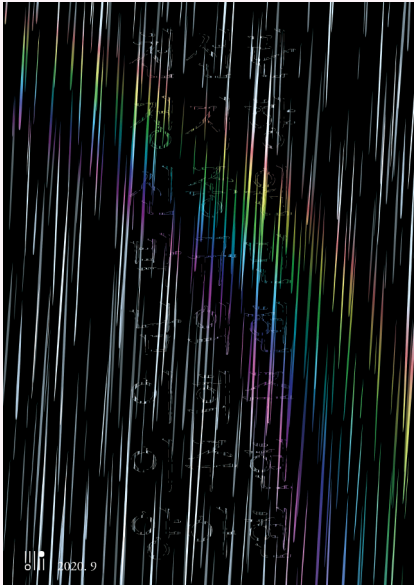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choomin.sf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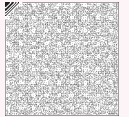
가장 사적인 연대



〈쓰다〉33호 포스터

독서의 즐거움은 은밀하다. 우리는 눈치 볼 필요 없이 원하는 책을 고르고, 내키는 시간에 읽기를 시작하거나 중단한다. 아예 읽지 않아도 상관없다. 어떤 책은 그저 책장에 꽂혀 있기만 해도 큰 기쁨이 된다. 어쩌면 독자는 책에 적힌 사소한 표현 하나가 불편해서 책을 덮어버리기도 하고, 짧은 구절 하나에 홀려 평생 한 명의 작가를 좇기도 한다. 나의 독서 습관 역시 종종 편협하며 자주 번덕스럽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사적일 수밖에 없는 취미를 통해 나는 타인을 만나고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책에서 만난 주인공이 나처럼 밤길을 무서워하니, 책 속 어느 동네가 내가 살던 곳과 너무나도 비슷해서, 책에 잠시 등장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왠지 친근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삶에 집중하고 싶고 그들 입장에 몰입해 보자 생각한다. 아니, 내가 굳이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어떤 책은 모든 장면마다 나를 거기에 세워두기도 한다. 특히 여성으로서 여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나는 어렵지 않게 그의 블로그를 찾아냈다. 치앙마이, 밤 문화, 그리고 그날 다녀온 클럽의 이름과 클럽이 있던 거리의 주소를 조합하자 가장 상단에 게시물이 떴다. 블로그는 치앙마이의 온갖 클럽이며 업소를 소개하는 게 시물로 가득했다. 나는 전에도 그런 블로그를 본 적이 있었다. 치앙마이보다 훨씬 더 많은 유흥업소가 있는 방콕에서였다. 그들은 성관광을 목적으로 태국을 찾는 이들을 위해 가이드 역할을 하고 돈을 벌었다. 술집에서



바가지를 쓰지 않기 위해, 여자에게 높은 비용을 청구당하지 않기 위해, 또는 밤거리에서 위협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또 모두가 찾아갈 수 있는 그저 그런 업소가 아닌 숨겨진 로컬 업소에 찾아가기 위해 자신이 필요하다고 광고했다.

정지향, 《리를 선사인》부분

위 장면에서 외국 여행 중인 '나'는 게스트하우스 옆방에 묵는 한국인 남자의 블로그를 들여다본다. 별다른 관심은 없었어도 낯선 곳에서 만난 '같은 한국인'이라서, '나'는 종종 남자의 행동이나 태도를 지켜보고는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태국으로 여행 온 남성의 '안전하고 특별한' 성매매를 돕는 일을 한다. 그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 그와 '같은 한국인'이라서, '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는 게 조금은 안심이 되었을까? 블로그를 읽기 전까지 '나'는 어찌 되었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남자에게 일말의 친밀함 느끼고 있었을까? 소설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정지향이 그리는 '나'는 애초 그 남자에게 아무 관심도, 기대도 없다.

특히 남성과 그들의 세계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나'의 모습에서, 나는 그런 태도가 여성이 세계를 안전하게 살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느낀다. 외부로 향하는 나의 감정과 관심을 닫은 채 살아가기. 나의 영역 안으로 아무도 초대하지 않기. 기대 없이 살기.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으니까. 이것을 건강한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남자가 만들어놓은 세계가 나-여성을 함부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수많은 관계의 가능성을 포기하면서까지 획득한 그런 안전장치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일까? 전혀 아니다. 안전장치는 그저 한 여성의 목숨을 지킨다. 저 안전장치는 그저 한 여성이 덜 맞는 데, 덜 죽는 데 필요한 무엇이다. 남자에게 '안전'이란 개념은 '안전한 성매매' 따위와 연관될 수 있다. 수많은 문화권에서 여자에게 '안전'이란 죽지 않기, 맞지 않기, 성폭행당하고도 되레 고소당하지 않기 등이 된다.

수많은 여성들이 '한 명'의 삶의 부분 부분과 동일한 경험을 겪었다는 뜻이고, 그러나 완전히 동일한 삶을 산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피해자의 일상 복귀'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색해야 할 물음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삶은 자신의 고유한 것이자 수많은 여성들의 삶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같고 다름 속에서 우리는 '동명이인의 연대자'일 수 있으며, 같은 이름을 공유하는 한에서 피해자는 잃어버린 익명성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지은, 《'미투 서사'로/를 다시 읽기》부분

이지은 평론가의 글을 인용하며 글을 마치려 한다. 누군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남이 당한 폭력에, 남이 고소당한 일에 왜 그리 신경 쓰는지, 어느 무심하고 무정한 여성의 얼굴에서 여성 독자인 나의 마음이 왜 그리 무너지는지. "그러나 피해자의 삶은 자신의 고유한 것이자 수많은 여성들의 삶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이 인용 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글 김잔디, 웹진 [비유] 편집자 사진 제공 웹진 [비유]

연결되어 있기에 의미 있는 ‘우리’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햇살 놀이터 <오버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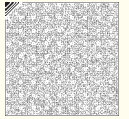


<오버코트> 공연 장면

교실이 텅 비었다. 올해 우리 아이들은 6월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학교에 올 수 있었다. 열 번도 채 만나지 못했는데 또다시 등교가 중지되었다. 돌이켜 보니 학교와 극장은 참 닮았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서로 호흡하며 연결되어 있기에 의미 있는 작업들.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듯 극장이라는 공간에서도 관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원래대로 등교, 개학을 했다면 아이들과 함께 봤을 테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 등으로 상황이 급변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혼자서 공연을 보게 되었다. 예고 영상 옆으로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관객들의 댓글을 볼 수 있었다. 나 혼자 방에 앉아 공연을 보고 있지만, 누군가 같은 시간에 이 공연을 함께 보고 있다는 데에서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이전에도 몇 번 온라인으로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제일 어려웠던 것이 공연에 몰입하는 것이었다. ‘극장’이라는 비일상적 공간이 주는 감각, 공연 안내를 하는 소리, 조명이 모두 꺼지며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 이를 통해 관객은 공연에 빠져들 준비를 한다. 그러나 영상을 통해 공연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없다. 눈을 돌리면 삶의 문제들이 보이는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연극적 환상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얼마 안 가서 사라졌다. 햇살 놀이터의 <오버코트> 공연이 시작되고 주인공 제인이 무대에 등장한다. 카메라에 눈을 맞추고 인사하며 밥은 먹었느냐고 물어본다. 실제로도 간단히 밥을 먹



으면서 공연을 보려고 준비했던 터라 깜짝 놀랐다. 지금, 나 보고 있는 거 아니지? 괜히 주변을 둘러봤다. 카메라를 보고 인사하는 것, 비록 저 멀리 다른 시간에 존재했을 테지만 영상 매체를 통한 소통의 장점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1인 관객에게 딱 맞춘 인사.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공연에 빠져들고 있었다.

무대에는 나무로 된 프레임이 놓여 있고, 그 나무막대를 들어 올려 구조물을 세우고 돌돌 말린 천을 펼쳐 배경을 만들어나간다. 이 과정을 역동적으로 표현해 내는 것이 무척 흥미로웠다. 제인이는 출근하려는 아빠를 못 가게 붙잡다가 코트에서 풀린 실을 잡아당긴다. 아빠와 제인이는 실로 나비를 만들기도 하고, 스크린에 걸쳐 새로운 모양을 만들기도 한다. 동물 모양인 것 같은데, 어떤 모양인지 궁금해하더니 눈을 딱 붙이는 순간 코끼리로 변했다. 실로 모양을 만들어내고, 공간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빌었다.

혼자 남아 놀던 제인이는 실을 뭉쳐 스크린으로 던진다. 장난치듯 스크린에 실 한 올이 튀어나온다. 뻗어나가는 실에 갇힌 제인이! 마치 거미줄에 공공 감긴 모양이 되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가위로 송덩 실을 자른다. 실재하는 사물과 영상이 조화롭게 활용되는 모습에 웃음이 났다. 스크린 속의 실과 실제 물건들이 결합하면서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정말 좋았다. 실은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줄넘기가 되었다가 외줄타기 줄이 되었다가 심전도선이 되기도 한다. 제인이의 몸을 가로지르던 선이 제인이의 머리 위로 위치만 이동했을 뿐인데 그 아래는 바다가 된다. 그제 그냥 스크린 위의 줄 하나라는 걸 모두가 알지만, 모두의 상상 속에서 그 선은 바다와 하늘을 가르는 수평선이 된다.

늘어진 줄로 고무줄놀이를 하다 보니 실이 스르르 사라진다. 다시 끌어다가 허리에 묶는 제인이. 실을 계속계속 끌어다 온몸에 묶는다. 그 반대쪽 끝엔 옷의 올이 풀려 옷이 반만 남은 아빠가 등장한다. 털실을 잔뜩 감은 제인이와 제인이가 털실을 감은 만큼 옷이 반쯤 사라진 아빠, 두 사람의 포옹과 함께 공연이 끝난다.

어른인 나도 제인이가 어떻게 행동할지, 저 실은 어떤 새로운 것으로 변할지 홀린 듯 바라보게 되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푹 빠져서 보고 있을지 궁금했다. 함께 공연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웃었다면 더더 행복했을 텐데. 재미있어서 터져 나오는 낄것의 반응과 함께했다면 훨씬 훨씬 즐거웠을 텐데. 아이들과 함께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소통 방식에 따른 새로운 예술 경험, 체험 방식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인이가 실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볼 때 시청 중인 아이들이 직접 따라 해보면서 함께 놀 수도 있지 않을까?

글 김은빈_관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mellipear@naver.com

사진 제공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당신은 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의 서커스 아티스트이자 시온서커스학교 대표 이슬빛나입니다. 흔히 서커스라고 하면 관절을 꺾거나 동물 조련을 하는 모습을 떠올리고, 예술의 한 장르보다는 기예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게 서커스는 예술이에요.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걸 몸과 도구로 표현해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서커스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서커스가 한국에서 하나의 예술 장르로 자리 잡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교육이었어요. 그렇게 교육을 하겠다고 다짐하니 예술가로서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복잡하기도 했어요.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선 현장과 끊임없이 교류해야 하는데, 교육과 병행하기엔 무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이 될 순 없더라도 별을 품는 밤하늘 같은 사람이 되자고 다짐하고 이곳 시온서커스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웃음)

Q 이곳은 어디인가요?

이곳은 국내 최초의 서커스 교육 공간 시온서커스학교입니다. 서커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 서커스를 경험할 수 있고, 단순한 취미 생활에 그치지 않도록 기본부터 심화과정까지 배울 수 있는 서커스 교육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어요.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해요. 직장인부터 어린 학생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고, 춤을 추거나 연기하는 분이 오시기도 하죠. 그리고 '태양의 서커스'에서 뮤지션으로 일하고 싶은 음악가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싶은 드랙퀸이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서커스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이 아지트처럼 모이는 장소라고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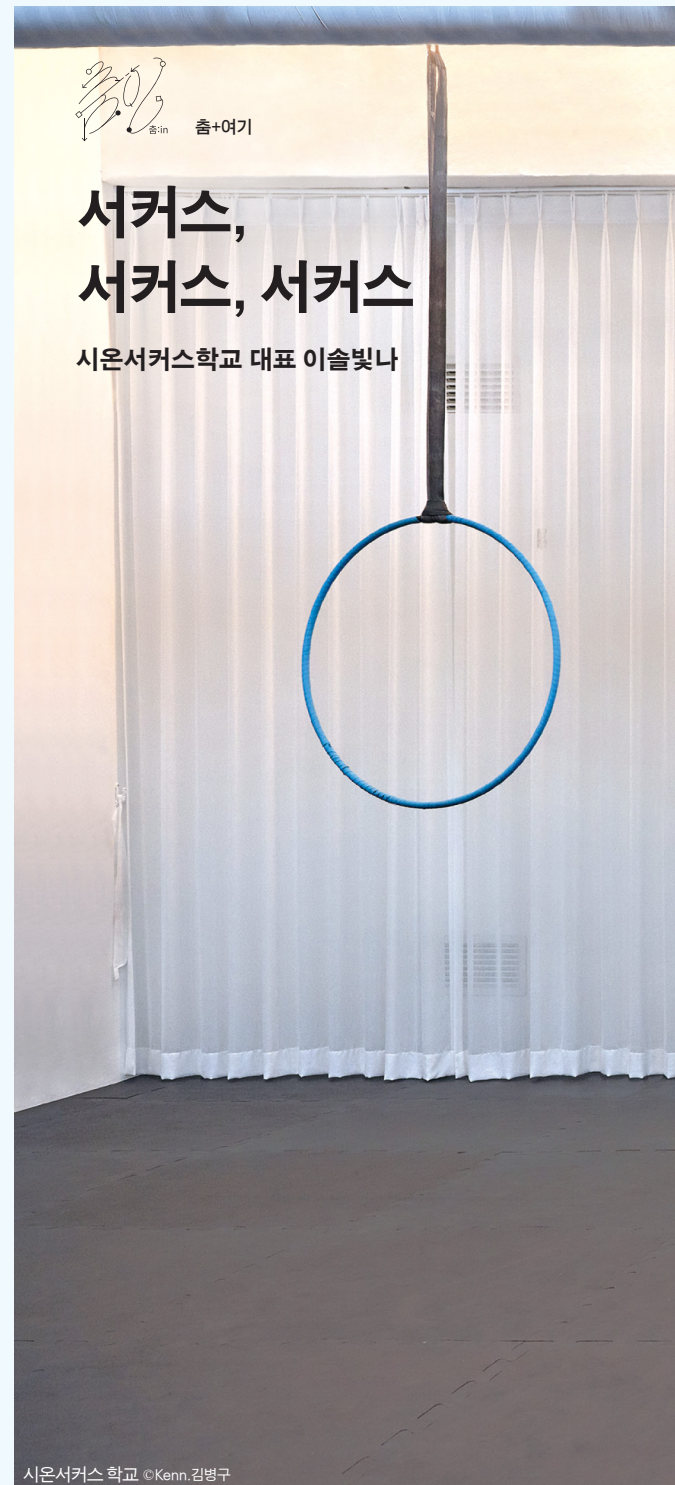
Q 이곳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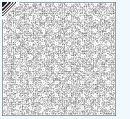
저는 움직임을 눈에 보이지 않는 본인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표현하고, 그것을 작품에 담는 거죠. 서커스를 할 때 놀라운 기예를 해야만 감동이 있는 게 아닌데, 많은 분이 기예 중심의 서커스나 동물 조련쇼를 기대하시고 실망하시곤 해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서커스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꾸고 서커스의 대중화에 일조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해요. 또한,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자연스럽게 움직임으로 담아내는 서커스 아티스트를 양성함으로써, 국내 서커스 아티스트가 서커스라는 장르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운영 목표예요. 서커스를 만나는 분들도 서커스를 단순히 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예술과 문화로 생각해 주시고 함께 소통하고 교감해 주셨으면 해요. 이번 가을에 서커스 공연을 함께 준비 중인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서 직접 공연 보시러 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취재·정리 김연임_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이슬빛나는 매일 꿈을 꾸고 꿈을 현실로 만나는 청년 예술가로, 어릴 적 장래희망을 따라 시온서커스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서커스 아티스트다.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진 [춤: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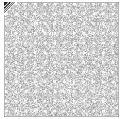
10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 | 삼각산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학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5 ● 2020 문학 캠페인 <문학에 몰들다>(~12.11) ● 전시 <제7회 종근당 예술지상>(~10.5)	6 ● 신당창작아케이드 메세나 제휴협력 프로젝트 전시 <예술해독제>(~10.31) ● 뮤지컬 <고스트>(~21.3.14)	7 ● 2020 정오의 음악회 10월 ● 뮤지컬 <아이 캔 플라이(I CAN FLY)>(~11.30)
12	13 ● 한려 수교 30주년 기념 <라흐마니노프 & 그리그> ● <제3회 중국희곡 낭독공연>(~10.18)	14
19 ● 2020 <서울예술교육아카데미> 감각 확장 워크숍 '모두를 위한 반인종차별 창작활동'(~11.16) ●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함께하는 <라흐마니노프 VS 차이콥스키>	20 ● 2020 <서울예술교육아카데미> 감각 확장 워크숍 '나와 손을 잡는 기술'(~11.3) ● 제11회 일우사진상 전시부문 수상작가전 <안종현: 당신으로부터 나의 거리>(~10.20)	21 ● 2020 일상문화 탐색지원사업 <온택트 일상탐색 포럼> ● 전시 <84번 토치카에서 보낸 1년>(~10.21) ● 한려 수교 30주년 기념 갈라콘서트 <2020 가을밤 콘서트>
26 ● 연극 <나, 해석>(온라인 공연)	27 ● 2020 <서울예술교육아카데미> 강연 및 토크 '미래학교와 예술교육: 예술은 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28  ●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 프로그램 <왕서게 이야기>(~11.8)



Thu	Fri	Sat	Sun
1	2 ● 연극 <장수상회>(~10.4) ● 연극 <템플>(~10.11) ● 뮤지컬 <세종 이도의 꿈>(~11.29) ● <2020 돈화문 나들이>(~11.27)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서울돈화문국악당 유튜브, 네이버TV)	3	4 ● 뮤지컬 <무인도 탈출기>(~10.4) ● 뮤지컬 <아킬레스>(~21.1.3)
8 ●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연극 <베이비 박스>(~10.18) ●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연극 <새들의 무덤>(~10.18) ● 전시 <장 미셸 바스키아: 거리, 영웅, 예술> (~21.2.7) ● NT Live <시라노 드베르주라크>(~10.15) ● 공연 <5959 LIVE, 소울소스 meets 김윤희> ● 2020 서울국제공연예술제(~10.31) (온라인 중계)	9 ● 연극 <타임택시>(~10.18) ● 뮤지컬 <광주>(~11.8) ● <서울술재즈페스티벌 2020>(~10.11) ● 공연 <백건우와 슈만>(~10.10) ● 2020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10.16) ● 스토리텔링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필리아치>	10 ● <2020 워댄스 'ON' 페스티벌> ● 공연 <재주소년 어쿠스틱라이브,溫스테이지>	11 ● 전시 <OSGEMEOS: YOU ARE MY GUEST> (~10.11) ● 전시 <동주와 함께 걷는 길>(~10.11)
15 ● 연극 <동굴 가족>(~10.31)	16 ● 2020 장애·비장애 문화예술 동행 프로젝트 <같이 있는 가치>(~11.4) ● 국립현대무용단 <이것은 유치가 아니다> (~10.18) ● 한려 수교 30주년 기념 렉처콘서트 <박물관에서 떠나는 러시아 여행> ● NT Live <에르마>(~10.18)	17 ● 2020 MEET <제5회 문래동 재즈페스티벌> (~10.18) ●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99℃ 선정작 신민 <Workers>(~10.31) ● 뮤지컬 <더 북-성경이 된 사람들 2020> (~12.19)	18 ● 뮤지컬 <아리 아라리>(~10.25)
22 ● 연극 <대심문관과 파우스트>(~11.8) ● 관현악시리즈 II <국악관현악과 한국 합창: 시조 칸타타> ● 2020 정동극장 <김주원의 사군자_생의 계절> (~11.8)	23 ● <이게 나야> 낭독공연(~10.25) ● 뮤지컬 <듀엣>(~21.1.31) ● 제2회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2020-Part2	24 ●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선정작 남정현 <curtain>(~10.25) ● <다음 시 페스티벌> ● 전시 <Nigel Cooke 展>(~10.24) ● 전시 <박건우: LOOK 바로보다; TAPE OFFICE>(~10.24) ● 공연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10.25) ● 2020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10월	25
29 ● <금천예술공장 11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10.31) ●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dot 선정작 유지영 <교환신체론>(~10.31) ● 뮤지컬 <썬앤문>(~11.1) ● 서울국제음악제 <베토벤, 불후의 작곡가>	30 ● 2020년 아리랑 공모 선정 사업 하망새 <나운규의 아리랑>(360° live)(~11.1) ● 국립창극단 <아비.방언>(~11.8) ● 김동규와 떠나는 가을여행 <10월의 어느 멋진 날>	31 ●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전시 <Art of Imagination 상상의 기술: 2020 예술가의 책 프로젝트>(~10.31) ● 전시 <Jennifer Steinkamp: Souls>(~10.31) ● KBS 교향악단 제759회 정기연주회 ● 뮤지컬 <가방 들어주는 아이>(~10.31)	

※이번 호에 실린 공연·전시·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0 문학 캠페인 <문학에 몰들다>

TBS라디오와 연계한 문학 캠페인 <문학에 몰들다>는 문학 가치 확산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은 '문학에 몰들다'(주 5회(월~금), 오전 9시 55분)와 '문학에 품당'(주 1회(화), 오전 9시 30분)으로 구성된다. 전자에는 2010~19년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석한 50명의 작가, 후자에는 2020년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참석한 1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일시 10월 5일(월)~12월 11일(금)
채널 TBS FM 95.1MHz
문의 02-324-4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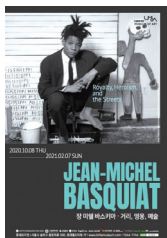


특특(TALK TALK) 클래식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 이야기> 시리즈 4-현악 4중주의 세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의 명곡을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성동문화재단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일시 10월 6일(화) 오전 11시
(비대면 공연으로 진행 시 온라인 상영 일자 공지)
장소 소월아트홀
관람료 전석 1만 원(성동구민·성동직장인·학생 5천 원)
온라인(유튜브) 시청 무료
문의 02-2204-6405 | www.sdfac.or.kr



전시 <장 미셸 바스키아: 거리 영웅, 예술>

'검은 피카소' '천재적인 낙서화가'라고 불리는 뉴욕 브루클린 출신의 화가 장미셸 바스키아의 회고전이다. 1980년대 초 뉴욕 화단에 혜성처럼 나타나 8년 동안 3천여 점의 작품을 남기고 요절했다. 이번 전시는 그의 국내 최대 규모 전시로, 앤디 워홀과 함께 작업한 대형 작품을 비롯해 회화, 조각, 드로잉 등 150여 점을 선보인다.

일시 10월 8일(목)~2021년 2월 7일(일)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
장소 롯데뮤지엄
관람료 성인 1만 5천 원, 청소년 1만 3천 원, 어린이 1만 원 등
문의 1544-7744



공연 <5959 LIVE, 소울소스 meets 김윤희>

오후 7시 59분에 시작해 59분간 즐기는 공연, 59 59 LIVE. 10월 무대의 주인공은 레게음악과 판소리를 재해석해 들려주는 '소울소스 meets 김윤희'다. 레게, 덤사운드 음악을 하는 소울소스가 소리꾼 김윤희와 만나 흥겨운 무대를 펼칠 예정이다.

일시 10월 8일(목) 오후 7시 59분
장소 구름아래소극장
관람료 전석 1만 1천 원
문의 02-3280-8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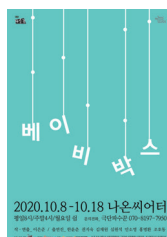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새들의 무덤>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새와 함께 자신의 딸이 있다고 믿는 '새섬'으로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는 연극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점점 파멸해 가는 '아버지'에 대한 연대기'와 이제는 가장 강렬하고 소중한 기억이 되어버린 '딸에 대한 연대기'다. 두 연대기의 교차를 통해 한국 사회와 개인의 삶을 통찰해 보고 살아 있는, 살아남은 자들의 희망에 대해 말한다.

일시 10월 8일(목)~18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4시(월 공연 없음)
장소 동양예술극장 3관
관람료 전석 3만 원(만 12세 이상)
문의 070-8276-0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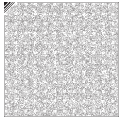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베이비 박스>

2020 극단 파수꾼의 신작 <베이비 박스>. 곧 미혼모가 되는 준희는 주변에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배는 점차 불러오고 직장에서도 더는 숨길 수 없다. 미혼모로 살기엔 순탄하지 않은 현실. 세상의 굶지 않은 시선과, 막막한 현실 앞에서 준희는 하나의 생명을 지키고, 삶을 당당하게 살고자 하는데...

일시 10월 8일(목)~18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4시(월 공연 없음)
장소 나온씨어터
관람료 전석 3만 원(만 12세 이상)
문의 070-8197-7950



뮤지컬 <광주>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창작 뮤지컬로, 광주광역시와 문체부 주도로 제작되었다. 작품의 무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 진압하는 1980년 5월의 광주 현장이다. 연출은 고선웅이 맡았고, 민우혁·테이·서은광 등이 주연으로 참여한다. 11월 8일까지 서울에서 40여 회 공연한 뒤 경기 고양, 부산, 전북 전주를 거쳐 오는 12월 광주에서 막을 올린다.

일시 10월 9일(금)~11월 8일(일)
화·목·금 오후 8시 | 수 오후 3시·8시 | 주말 및 공휴일
오후 2시·6시 30분(월 공연 없음)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 VIP석 11만 원, R석 8만 8천 원, S석 6만 6천 원
문의 1577-3363



서초문화재단 반포심산아트홀 <피아노 콘서트>

피아노를 주축으로 최고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국내외 교수 겸 연주자들이 베토벤, 쇼스타코비치 등 친숙한 클래식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일시 10월 10일(토)·31일(토) 오후 3시
장소 서초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문의 02-2088-8312 | www.seochocf.or.kr



2020 장애·비장애 문화예술 동행 프로젝트

<같이 잇는 가치>

이번 프로젝트는 일상의 조건과 창작으로의 연대를 주제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공존하는 삶과 문화예술의 미래'를 모색하고 확산하는 장이다. 또한 잠실창작스튜디오 11기 입주작가의 기획전시 및 서초문화재단 창작공간 입주작가 간 공동 창작 워크숍과 장애아동 멘토링 프로그램의 결과 전시까지 다양한 창작 결과물을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일시 포럼: 10월 16일(금)~17일(토) 오후 6시
전시: 10월 16일(금)~11월 4일(수) 오전 9시 30분(월 휴관)
장소 서초문성지 역사박물관
관람료 무료
문의 02-423-6674~5



2020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선정 프로젝트

<제5회 문래동 재즈페스티벌>

국내 정상의 재즈뮤지션들이 문래동에서 관객과 만난다. 문턱을 최대한 낮춰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재즈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페스티벌이다.

일시 10월 17일(토)~18일(일)
장소 문래재즈IN
관람료 예매 1만 5천 원, 현장예매 2만 원
문의 02-2676-0093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99°C 선정작

신민 <Workers>

예술가로 사는 삶과 노동자로 사는 삶 사이에서 오는 괴리,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 노동자로서 살아오며 겪는 지점들, 그리고 발언하고 싶은 부분들, 그러면서도 위험한 지점들에 대한 고민을 작업으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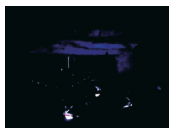
일시 10월 17일(토)~31일(토) 오후 1시
장소 온수공간
관람료 무료
문의 070-7543-3767 | space_onsu@naver.com
cargocollective.com/daughternose



낭독공연 <이게 나야>

연희문화창작촌 웹진[비유]의 '하다' 프로젝트 중 2개는 온라인 연재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그 중 '창작집단 담'의 웹진 연재 '이거 나야나' 프로젝트가 낭독공연 <이게 나야>로 이어진다. 극작가의 고민과 배우의 고민이 만나 만들어진 세 명의 인물이 무대에 오른다. 온라인 연재가 인물 탄생 과정을 다뤘다면, 이번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희곡 속으로 인물을 불러본다. 인물이 사건을 만나 갈등하고 움직이는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

일시 10월 23일(금)~25일(일)
금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3시
장소 연희문화창작촌 미디어랩 및 야외극장
관람료 무료
문의 010-3033-0967 | bit.ly/이게나야(예매)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선정작

남정현 <curtain>

공간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가르는 틈에 대한 퍼포먼스 작업이다. 우리는 어떻게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가? 다가오면서 멀어지는, 쓰면서 지워지는 풍경을 감각하며 넘어가면서 넘어가지 못하는 관계의 안과 밖을 정리해 나간다.

일시 10월 24일(토)~25일(일) 오후 6시
장소 대선재분 영등포공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10-9229-0161



동화발레 <동물의 사육제>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어린이 동물원! 이원국발레단의 <동물의 사육제>는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카미유 생상스의 음악을 이원국 단장의 안무로 새롭게 구성한 동화발레 공연이다. 해설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발레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는 물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

일시 10월 24일(토) 오후 4시
장소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문의 02-2614-7970 | www.guroartsvalley.or.kr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프로그램 <왕서개 이야기>

<왕서개 이야기>는 1930년대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세계사적 아픔을 담은 작품이다. 가해와 피해의 역사는 모두 감춰지기를 바라는 듯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간은 흘러간다. 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자 한다.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 앞에 가해의 역사는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리고 복수를 완성한 피해자는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

일시 10월 28일(수)~11월 8일(일)
평일 오후 7시 | 주말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만 13세 이상)
문의 02-758-2150 | www.ns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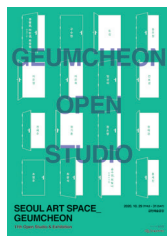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dot 선정작

유지영 <교환신체론>

작가가 2019년 <신체교환론>에서 다뤘던 '자본과 신체의 관계'의 연장선인 <교환신체론>에서는 전통무용에 대해 탐구한다. 특히 '왜 전통무용에서는 웃으면서(미소를 머금고) 춤을 추는가?'라는 질문 등으로 한국무용 역사를 역추적하며 들춰낸다.

일시 10월 29일(목)~31(토)
평일 오후 5시~8시 | 주말 오후 1시~4시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1만 5천 원
문의 apparatus2019@gmail.com



<금천예술공장 11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2020년 금천예술공장 11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오픈 및 기획전시 행사다. 퍼포먼스, 연주 등 다채로운 구성의 오픈 무대뿐만 아니라 기획전시 및 아티스트와 예술 전문가가 함께하는 아티스트 토크까지. 이번 금천예술공장 11기 오픈스튜디오는 전 시장을 벗어난 대안적 실험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문화예술계 전시 환경 변화를 모색한다.

일시 10월 29일(목)~31일(토)
장소 금천예술공장
관람료 무료
문의 02-807-4800 | geumcheon@sfac.or.kr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Art of Imagination 상상의 기술>

2020 예술가의 책 프로젝트

닷프레스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다크룸과 디프론트 스페이스에서 전시 <상상의 기술: 2020 예술가의 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본 전시는 물질과 사물에 관한 창작자의 호기심과 질문이 발아해 회화, 사진, 설치, 그리고 예술가의 책으로 다양하게 변주되는 과정을 담는다.

일시 ~10월 31일(토)
장소 닷프레스
관람료 무료(모든 연령)
문의 02-447-2581

Un

예술과
기술이
만드는
미지의
무한대

fold

X

Platform

2020.10.10. — 10.20.

전시 Xhibition

2010 - 2020

강이연
권병준
박승준
신승백·김용훈
양민하
오주영
이재형
팀보이드

블루스퀘어 네모
unfoldx.org

전시기간
2020.10.10 - 10.20

토론 online Dialogue X

융합예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

아시아문화원
아트센터나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Hzone
홍익대학교 MR미디어랩

2020.10.14. 5pm
unfoldx.org

공모 Project Unfold X

융합 예술 창제작
지원 공모

사업설명회 on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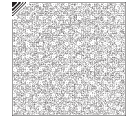
2020.10.14. 7pm
unfoldx.org

접수기간

2020.10.15. - 10.30.
unfoldx.org

02-3290-7406
artech@sfac.or.kr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9월호 독자의견

[문화+서울]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감되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문화재단 본관에서 접했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코로나로 공연과 전시가 많이 취소되고 있는 탓에 '문화+서울'에서 매일 소개해주는 공연, 전시, 책, 영화 등 모든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어려운 시대,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매일 고생하시는 '문화+서울' 편집부에도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
* [문화+서울]은 웹진(www.sfac.or.kr/magazine)으로도 발행되며 종이 잡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편집 후기

“지르기 전에 세 번을 생각해야 할 것을...”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모두가 예민한 때”

전주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시월을 읊”

김영민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편집진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2월처럼 짧았던 9월도 버텨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아림 객원 기자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전은정 객원 기자

독자 엽서

김설현 님(서울시 동대문구)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서울문화재단 본관에서 접했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코로나로 공연과 전시가 많이 취소되고 있는 탓에 '문화+서울'에서 소개해 주는 공연, 전시, 책, 영화 등 모든 소식이 반가웠습니다.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어려운 시대,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매일 고생하시는 '문화+서울' 편집부에도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화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삼각산시민청,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종량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한국공연예술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2020 서울국제작가축제

Seoul International
Writers' Festival

11.2.—11.8. Online

내일을 쓰다:

Writing Tomorrow

siwf.or.kr

황석영, Paolo Giordano, 정세랑,
Luis Eduardo García, 강성은, 김세희,
Olivier Guez, 박연준, Gwee Li Sui,
백수린, 심윤경, Oyamada Hiroko,
유용주, Iman Mersal, 이문재,
Chigozie Obioma, 장류진, 정영수,
Brigitte Oleschinski, Kim Thúy,
조해진, Wang Weilian, 황인숙,
Jeffrey Yang, 황인찬

SIWF



한국문학번역원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디자인재단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